

韓國의 食糧自給化에 관한 一研究(其一)

— 農產物 價格政策을 中心으로 —

慎 鏞 厦
鄭 英 一

〈目 次〉	
I. 經濟發展과 食糧需要의 增加	III. 食糧自給化를 위한 價格政策
II. 食糧供給의 構造	1. 低農產物價格政策論批判
1. 食糧供給의 分析	2. 高農產物價格政策
2. 食糧増産의 可能性	3. 二重價格制度
3. 食糧不足이 經濟發展에 미치는 影響	4. 高農產物價格政策과 二重價格 制度의 綜合
	IV. 結 語

I. 經濟發展과 食糧需要의 增加

國民經濟의 急速한 自立的 發展을 위해서는 產業各部門의 相互依存關係와 循環關係를 正常化하여 發展시키는 作業이 必要하다는 事實이 指摘되고 있다. 특히 經濟發展을 위하여 農業이 積極的인 役割을 수행하도록 農業을 開發하고 農業部門과 工業部門의 相互依存關係와 循環關係를 正常的으로 再確立하여 發展시키는 문제는 현재 韓國經濟가 當面한 緊急한 課題의 하나이다.

國民經濟의 發展을 위하여 農業部門이 擔當하는 基本적 役割은 ①食糧供給 ②原料供給 ③勞動力供給 ④市場供給 ⑤資本供給 등의 다섯가지 점으로 要約할 수 있다. ⁽¹⁾ 이 중에서

(1) Bruce F. Johnston과 John W. Mellor는 經濟發展에 있어서의 農業의 役割을 ①Providing increased food supplies, ②Enlarged agricultural exports, ③Transfer of manpower from agriculture to nonagricultural sectors, ④Agriculture's contribution to capital formation, ⑤Increased rural cash income as a stimulus to industrialization의 다섯가지를 들고 있다. Bruce F. Johnston and John W. Mellor, "The Role of Agriculture in Economic Developme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ember, 1961. 한편 Simon Kuznets는 그것을 ①Product contribution, ②Market contribution, ③Factor contribution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Simon Kuznets, "Economic Growth and the Contribution of Agriculture," in *Economic Growth and Structure*, New York, 1965, pp. 236-256, 參照.

도 특히 食糧供給은 農業部門만이 專擔하고 있는 役割이다. 食糧供給은 國民의 直接的인 生存維持와 經濟活動을 위한 「에너지」源으로서의 「카로리」供給을 擔當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經濟部門보다도 緊要도가 높은 重要的인 것이며 國民經濟全體의 基礎가 되는 部門이다. 그러므로 食糧問題는 緊要도와 重要性의 特性으로 볼 때 단순히 農業問題라고 말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國民經濟全體의 基本問題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食糧問題에 관하여 「슐츠」(Theodore W. Schultz)는 그 需要·供給變動의 三類型을 다음과 같이 區分하고 있다.⁽²⁾ 第1類型은 食糧의 需要와 供給이 同一率로 右方으로 移動하는 경우, 즉 一種의 移動均衡狀態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第2類型은 食糧需要의 右方으로의 移動이 供給의 同方向으로의 移動보다 크고 따라서 需要曲線이 供給曲線보다 높은 相對價格에서 交叉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第3類型은 食糧供給의 右方으로의 移動率이 需要의 同方向으로의 移動率을 上廻하는 경우이다.

韓國經濟가 當面하고 있는 食糧問題는 第2類型이며, 캐나다·美國·오스트랄리아 등 諸國의 그것은 第3類型이다. 즉 韓國經濟는 대부분의 다른 開發途上國과 마찬가지로 食糧需要의 增加率(需要曲線의 右方으로의 移動率)이 慢性的으로 食糧供給의 增加率(供給曲線의 右方으로의 移動率)을 上廻하는 不均衡狀態에 있으며, 이것을 첫째로 주어진 時點에서 均衡狀態를 維持하도록 矯正하고, 둘째로 그 均衡點 위에서 需要曲線의 移動率과 供給曲線의 移動率을 調整하여 長期的으로 持續的인 移動均衡을 維持하는 問題에 當面하여 있다.

韓國經濟가 健全하게 發展하기 위해서는 需要와 供給이 長期的으로 均衡되어야 하며, 특히 食糧自給化가 前提되어야 한다는 것은 自立經濟體制의 確立과 發展이 提唱될 때마다 強調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15 解放以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食糧의 供給不足은 慢性的 現象으로 累積되어 왔으며 그 不均衡의 隔差는 더욱 擴大되어 왔다. 食糧의 需要曲線과 供給曲線의 長期的 移動均衡을 獲得하고 維持하기 위해서는 均衡條件에 대한 檢討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經濟學的 立場에서 볼 때 食糧需要를 變動시키는 要因으로는 人口增加, 所得增加, 嗜好의 變化, 需要對象財의 價格 및 聯關財의 價格變動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長期的인 食糧需要의 變動要因으로는 人口增加와 所得增加가 가장 중요하다.

人口增加率을 p , 所得增加率을 g 라고 할 때 食糧需要의 變動은 基準年度에 비하여 人口效果에 의하여 $1+p$ 만큼 變動하고 所得效果에 의하여 $1+ng$ 만큼 變動한다. 여기서 n 은

(2) Theodore W. Schultz,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Agriculture*, New York, 1953, p.15ff.

食糧需要에 대한 所得彈性值이다. 따라서 두 變動要因의 綜合效果는 $(1+p)(1+\eta g)$ 가
 A 되므로 基準年度の 需要量 1을 減하면,

$$(1+p)(1+\eta g)-1=1+p+\eta g+\eta gp-1=p+\eta g+\eta gp$$

가 된다. 이 때 $\langle \eta gp \rangle$ 는 극히 작은 값이므로 이것을 無視하면 食糧需要의 增加率 D 는 다
 음과 같은 式에 의하여 얻어진다.⁽³⁾

$$D=p+\eta g$$

이 方程式은 人口增加 뿐만 아니라 所得增加의 效果가 잘 考慮되어 있으므로 經濟發展
 에 따르는 食糧需要의 長期變動을 豫測하는데 매우 有用하다. 이 方法에 의하면 食糧需要
 의 豫測은 극히 現實值에 接近하는 傾向이 있다.

人口增加는 食糧需要를 變動시키는 가장 重要한 要因이다. 人口增加는 直接的으로 그
 增加分만큼의 食糧需要의 增加를 隨伴한다. 즉 人口增加率 p 는 食糧需要를 p 만큼 增加시
 키는 것이므로 食糧需要增加率 $D=p+\eta g$ 에서 人口增加率 p 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第1次經濟開發 5 個年計劃(1962~66)에서는 人口增加率을 基準年度の 2.9%에서 目標
 年度에는 2.74%로 低下시킬 것을 前提로 하였다. 第2次經濟開發計劃(1967~71)에서는
 始發年度の 人口增加率을 2.4%로 推定하고 이것이 家族計劃事業의 進行의 結果 目標年度
 에는 2.0%로 低下될 것으로 推定하였다. 第3次經濟開發計劃(1972~76)에서는 始發年度
 의 人口增加率을 1.6%로 취하고 1973년부터 目標年度인 1976년까지는 1.5%의 安定
 된 增加率을 維持할 것이라고 推定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年平均 人口增加率을 1.5%로만 취하여도 이것은 바로 人口
 增加의 效果에 의해서 만으로도 食糧需要가 年平均 1.5% 以上씩 增加하리라는 事實을
 나타내는 것이다.

國民의 實質可處分所得이 高度로 높아서 食糧에 대한 需要의 所得彈性이 零에 接近하
 는 곳에서는 國內의 食糧需要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은 주로 人口增加率 p 이며 所得增加
 의 效果는 대체로 輕視할 수 있다. 그러나 國民所得水準이 낮아 食糧에 대한 需要의 所得
 彈性이 比較的 높은 開發途上國에서는 所得增加效果에 의한 食糧需要의 增加는 매우 높
 다. 특히 「페루」, 「니카라과」, 「볼리비아」, 「요르단」, 「이란」, 「튀니시아」, 「리비아」,
 「세일론」, 「인도네시아」, 印度, 「파키스탄」, 韓國, 필립핀, 中國 등은 世界에서도 가장

(3) Earl O. Heady, *Agricultural Policy under Economic Development*, 1962, p.645.

所得增加에 의한 食糧需要의 增加率이 높은 나라들이다.⁽⁴⁾ 이러한 여러나라에서는 所得增加에 의하여 食糧需要가 현저하게 增加한다. 그러나 所得增大에 따라 그와 同率로 食糧需要가 增大하는 것은 아니다. 「엥겔의 法則」에서도 證明되는 바와 같이 所得增大에 따라 食糧需要의 增加率은 둔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所得增加에 의하여 誘發되는 食糧需要의 增加는 所得의 變化率에 대한 需要量의 變化率의 程度 즉 所得彈性值에 의하여 影響을 받는다. 즉 所得增加效果로 말미암아 發生하는 食糧需要의 增加率은 ①所得增加率과 ②食糧需要의 所得彈性值의 두개의 要因에 의하여 決定된다.

이제 所得水準을 e , 需要量을 d 라 하고, 所得水準의 增加分을 Δe , 需要의 增加分을 Δd 라고 表示하면, 所得彈性值 η 는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eta = \frac{\Delta d}{d} / \frac{\Delta e}{e} = \frac{\Delta d}{\Delta e} \cdot \frac{e}{d}$$

所得彈性值 η 는 일반적으로 「플러스」의 값을 가지나, 때로는 所得이 上昇함에 따라 需要가 逆으로 減少하는 品目이나 財貨도 있는 바, 이 경우에는 η 는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다. 즉 여기서 $\eta=0$ 이면 所得增加가 需要增加를 誘發하지 않는 경우이고, $\eta>0$ 이면 所得增加가 需要增加를 招來하는 경우, $\eta<0$ 이면 所得增加가 需要減少를 招來하는 경우, $\eta=1$ 이면 所得增加와 同比率로 需要가 增加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食糧에 대한 總需要에 있어서는 $\eta<0$ 이거나 또는 $\eta>1$ 인 경우는 經驗적으로 存在하지 않으며, 항상 $0<\eta<1$ 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食糧의 各個別品目에 있어서는 모든 경우가 存在할 수 있다. $\eta<0$ 인 個別品目은 이른바 「下級財」이며, $0<\eta<1$ 인 경우는 「必需財」 또는 「上級財」이고, $\eta\geq 1$ 인 경우는 「奢侈財」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所得增加에 따르는 食糧需要의 變動을 보기 위해서는 食糧需要의 所得彈性值과 人口 1人當 實質所得增加率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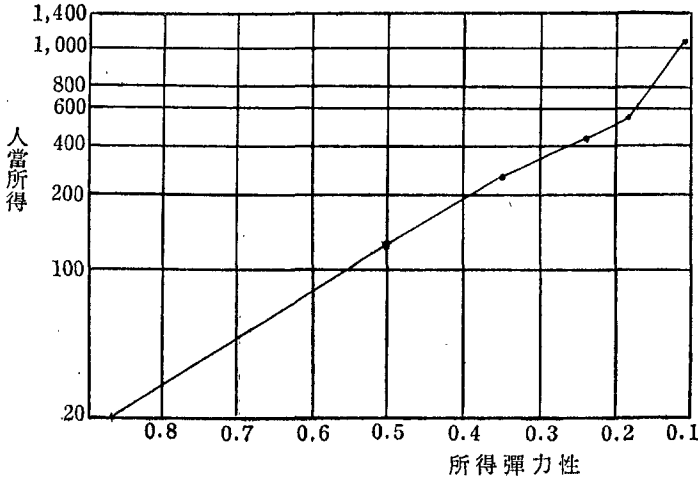
헤디(Earl O. Heady) 教授는 코린·크라크(Colin Clark) 教授의 統計資料를 引用하여 國民所得增加와 食糧需要의 所得彈性值의 變動과의 關係에 대하여 다음 제 1도와 같은 一般화된 「모델」을 設定하였다.⁽⁵⁾ 이 그래프에 의하면 1人當 實質國民所得이 80 弗일 경우 食糧需要의 所得彈性值는 0.6 이고, 100 弗일 경우의 그것은 약 0.55 이며, 150 弗의 경우의 그것은 약 0.45 이고, 200 弗의 경우의 그것은 약 0.38 이며, 國民所得이 1,000 弗이면 食糧需要의 所得彈性值는 0.1로 低下하고, 國民所得이 1,000 弗 以上으로 上昇하면 食糧需要의 所得彈性值는 0에 接近한다. 오늘날 經濟的 繁榮을 누리고 있으며 食糧需

(4) *ibid.*, p. 225.

(5) *ibid.*, p. 646.

要의 所得彈性值가 매우 낮은 先進工業諸國도 工業化初期에 있어서는 현재의 開發途上國과 같이 食糧需要의 所得彈性值가 매우 높았다는 事實이 證明되고 있다.⁽⁶⁾

<제 1 도> 國民所得과 所得彈性과의 關係



우리나라의 食糧總需要에 대한 所得彈性值를 레디教授의 一般모델에서 求하여 보면 1970~80 年 사이에 所得彈性值는 0.35~0.40 사이에 分布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韓國의 食糧總需要에 대한 所得彈性值의 計測이 加重值의 교란으로 正確한 것을 얻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이 一般모델에서 구한 食糧需要의 所得彈性值는 食糧總需要에 관한 限, 一般化하여 使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食糧需要의 個別品目에 대한 所得彈性值의 計測은 部分的으로 農業協同組合中央會에서 실시하여 오고 있다. 1961 年에 發表된 우리나라의 食糧需要에 대한 品目別 및 社會階層別 所得消費函數와 所得彈性值는 <표 1>과 같다.⁽⁷⁾

이 <표 1>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사실은 食糧需要의 所得彈性值가 社會階層別로 현저한 差異가 있다는 점과 보리쌀이 農民에 있어서까지도 $\eta < 0$ 의 下級財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農家와 都市勞務者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下級財($\eta < 0$)에 포함되는 것은 보리쌀과 薯類이며, 高級財 또는 必需財($0 < \eta < 1$)에 포함되는 것은 쌀, 小麥粉, 雜穀, 豆類, 卵類, 무우, 배추 등이고, 奢侈財($\eta > 1$)에 포함되는 것은 牛肉, 豚肉, 乳類, 其他肉類, 果實, 加工食品 等이다.

(6) R.G.D. Allen and A.L. Bowley, "Family Expenditure," *A study of Its Variation*, 1935, Table A. pp. 32-33; Theodore W. Schultz,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Agriculture*, p. 53.

(7) 農業協同組合中央會調查部 『農協調查月報』, 1961年 6月號 및 『韓國農業의 分析』, 1963, pp. 62.-63.

< 丑 1 >

階層別 食糧需要의 所得彈力性

品目別	需要者別	方程式	所得(支出)彈力性
쌀	俸給者	$y=1.19x+72.68$	0.134
	勞務者	$y=5.86x+46.24$	0.495
	農民	$y=11.55x+27.40$	0.654
보리쌀	俸給者	$y=-0.919x+12.83$	-2.1296
	勞務者	$y=-1.854x+20.56$	-1.68
	農民	$y=-0.874x+36.62$	-0.12
小麥粉	俸給者	$y=0.00065x+0.0455$	-0.1399
	勞務者	$y=-0.0043x+0.0707$	-0.72595
	農民	$y=715.38x+27.39$	0.5535
雜穀	俸給者	$y=-0.00144x+0.0222$	-1.2629
	勞務者	$y=0.002x-0.00728$	2.1081
	農民	$y=260.576x+50.97$	0.1201
豆類	俸給者	$y=0.000096x+0.01919$	0.0413
	勞務者	$y=0.0038x-0.00713$	1.3717
	農民	$y=1590.71x+1.64$	0.9788
薯類	俸給者		
	勞務者		
	農民	$y=-306.73x+107,356$	-0.1569
牛肉	俸給者	$y=0.00493x+0.0949$	0.33239
	勞務者	$y=0.02629x-0.09534$	1.9797
	農民	$y=0.00163x+0.0153$	0.49798
豚肉	俸給者	$y=0.00983x-0.04054$	2.2871
	勞務者	$y=0.00187x+0.0326$	0.3482
	農民	$y=0.00383x-0.00957$	1.0359
卵類	俸給者	$y=0.00151x-0.009017$	2.8057
	勞務者	$y=0.00444x-0.03029$	14.4243
	農民	$y=0.00799x+0.00334$	0.6883
其他肉類	俸給者	$y=0.000663x+0.0074$	0.3963
	勞務者	$y=0.00137x+0.035$	0.2665
	農民	$y=0.00279x+0.0223$	0.4747
무우	俸給者	$y=0.00318x+0.0534$	0.3492
	勞務者	$y=0.02146x-0.09105$	2.3744
	農民	$y=0.00251x+0.06453$	0.2672
其他菜蔬	俸給者	$y=0.04099x-0.23456$	4.5601
	勞務者	$y=0.00083x+0.06661$	0.1036
	農民	$y=0.01853x-0.090178$	2.9766
果實	俸給者	$y=0.00356x+0.5613$	0.3725
	勞務者	$y=0.02037x-0.04825$	1.4774
	農民		
加工食品	俸給者		
	勞務者		
	農民		

자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사부

<표 1>에서 보이는 食糧需要의 所得彈力性を 다시 全國民의 係數로 糧穀에 한하여 變의 尙 改編하여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 計算의 便宜上 都市人口를 俸

<표 2> 穀物需要의 所得彈力性(全國)

穀 類 別	彈 性 值
米	0.5898
麥	-0.3227
(大 麥)	-0.7923
(小 麥)	0.1041
雜 穀	0.5604
豆 類	0.9958
薯 類	-0.1569

<표 3> 階層別·品目別 價格·交叉·所得彈力性(1968)

區 分	價格·交叉·所得彈力性係數		
	$p'r$	$p'b$	p'
		<米 穀>	
全 國	-0.8056	0.2426	-0.2162
"	-1.1509	0.3583	0.1414
"	-0.786		
"	-0.900		
"	-0.823		
都 市 家 口	-0.846		
"			0.3725
"			0.4461
"			0.3227
農 家	-0.866		0.6303
			0.8108
			0.7466
		<보 리 쌀>	
全 國	0.3138	-0.8079	-0.0735
"		-1.080	
都 市 家 口	3.4131	-2.0537	-0.5736
"		-1.5765	
"			0.8026
"			-0.9260
"			-0.8949
農 家		-0.540	
			-0.8534
			-0.5921
			-0.3012

자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給者와 勞務者로 構成된 것으로 하고 農村人口는 農民으로만 構成된 것으로 假定하여 多段階의 加重値를 구하여 加重平均함으로써 全國으로 一般化하였다. 이러한 分類와 全國의 所得彈性値는 食糧自給化를 위한 消費類型의 改造와 供給增加를 市場의 價格機構를 통하여 行하려고 할 때 중요한 문제점을 示唆해 주는 것이다.

農業協同組合中央會가 1968 年에 발표한 食糧需要의 所得彈性値는 <표 3>과 같다.⁽⁸⁾ 이 표에서는 米穀과 보리쌀의 두 품목에 대해서만 需要의 所得彈性値가 計測되고 있으며, 그 대신 두 품목의 價格彈性値와 交叉彈性値가 計測되고 있다. 米穀과 보리쌀의 需要의 所得彈性値는 두 표에서 대조되는 바와 같이 1961 年에 發表된 數値보다 약간 低下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큰 變動은 없고, 보리쌀은 都市와 農村에 있어서 다 같이 下級財로 머물러 있다. 1968 年에 計測된 <표 3>은 다음 章에서 다시 檢討될 것이다.

다음 人口 1 人當實質國民所得의 增加率은 第 1 次經濟開發 5 年計劃期間中에는 年平均 5.6%이었고, 第 2 次經濟開發 計劃에서는 9.0%이었으며, 第 3 次經濟開發 計劃에서는 7.1%로 推定하고 있다. 여기서는 第 3 次經濟開發 5 年計劃의 計劃値를 취하여 使用하기로 한다.

이제 全體食糧의 需要增加率을 高位·中位·下位推計로 區分하여 推計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p	η	g	$p+\eta g$
第 1 推定(高位推計).....	1.5	0.40	7.1	4.34
第 2 推定(中位推計).....	1.5	0.35	7.1	3.98
第 3 推定(下位推計).....	1.5	0.30	7.1	3.63

여기서 高位推計는 總食糧需要의 所得彈性値를 0.40 으로 취한 경우이며 中位推計는 그것을 0.35 로 假定한 경우이고 下位推計는 그것을 0.30 으로 假定한 경우이다. 여기서 人口增加率 p 와 所得增加率 g 를 固定시키고 所得彈性値만 變動시켜 본 것은 이 두 變數는 全國統計를 구할 수 있어 意見差가 좁혀질 수 있는데 反하여 所得彈性値는 精密한 統計調査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標本調査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 調査者에 따라 상당한 意見差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편의상 中位推計를 취하여 보는 경우의 食糧總需要의 年平均 增加率은 3.98%이다. 이것은 現在 食糧의 自給化를 達成하였다고 假定하는 경우에도 앞으로 계속 食糧의 自給(食糧의 需要曲線과 供給供線의 移動均衡)을 維持하기 위해서는 年平均 3.98%씩 食糧供給을 增加시켜 나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사부, 『농협조사월보』, 1968년, 11월호.

이제 이것을 食糧의 品目別로 區分하여 所得增加에 의한 需要增加率을 推定하여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이 표에 의하여 人口增加率을 감안한 米穀의 年平均 需要增加率은

<표 4> 品目別食糧需要增加率(1)

品目	γ	g	γg
米 穀	0.5898	7.1	4.1776
麥 類	-0.3227	7.1	-7.1256
보 리 쌀	-0.7923	7.1	-17.4951
小 麥 粉	0.1041	7.1	2.2989
雜 穀	0.5604	7.1	12.3788
豆 類	0.9958	7.1	21.9879
薯 類	-0.1569	7.1	-3.4648

5.6% 以上으로서 總食糧需要增加率을 훨씬 上廻하고 있는데 反하여 보리쌀의 年平均需要增加率은 「마이너스」로서 所得이 增加함에 따라 需要가 減少할 趨勢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食糧需給의 均衡을 獲得하기 위해서는 品目別로 볼 때는 供給面에서 보리쌀 生産으로부터 米穀生産으로의 作付轉換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需要面에서 米穀消費로부터 보리쌀 消費로의 部分的 需要移動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兩者의 組合이 必要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5> 1961~71年의 食糧需要와 供給 단위: 千% (千石)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供給											
移 越	999 (7,222)	1,041 (7,538)	912 (6,604)	627 (4,542)	1,042 (7,537)	1,220 (8,819)	1,304 (9,445)	1,333 (9,634)	1,337 (9,668)	1,456 (10,529)	1,843 (13,265)
生 産	5,405 (38,470)	5,820 (41,389)	4,916 (34,978)	6,421 (45,687)	7,343 (52,510)	7,244 (52,002)	7,446 (53,299)	7,037 (50,275)	6,863 (49,208)	7,630 (54,492)	7,325 (52,335)
導 入	536 (3,979)	482 (3,678)	1,223 (9,235)	841 (6,392)	634 (4,910)	525 (4,206)	1,100 (8,102)	1,496 (11,171)	2,389 (17,118)	2,115 (15,406)	3,131 (22,415)
計	6,940 (49,671)	7,343 (52,605)	7,051 (50,817)	7,889 (56,621)	9,019 (64,957)	8,989 (65,027)	9,850 (70,846)	9,866 (71,080)	10,589 (75,994)	11,201 (80,427)	12,299 (88,015)
需要											
當 年 消費	5,875 (41,965)	6,367 (45,555)	6,417 (46,226)	6,883 (48,987)	7,792 (56,087)	7,618 (55,116)	8,513 (61,183)	8,527 (61,397)	9,129 (65,435)	9,353 (67,132)	10,139 (72,536)
輸 出	24 (168)	64 (44)	7 (49)	14 (97)	7 (51)	67 (466)	4 (29)	2 (15)	4 (30)	5 (30)	5 (37)
次 年 度 移 越	1,041 (7,538)	912 (6,604)	627 (4,542)	1,042 (7,537)	1,220 (8,819)	1,304 (9,445)	1,333 (9,634)	1,337 (9,688)	1,456 (10,529)	1,843 (13,265)	2,155 (15,442)
計	6,940 (49,671)	7,343 (52,605)	7,051 (50,817)	7,889 (56,621)	9,019 (64,957)	8,989 (65,027)	9,850 (70,846)	9,866 (71,080)	10,589 (75,994)	11,201 (80,427)	12,299 (88,015)
自給率	92.0	91.3	76.6	94.0	94.2	95.1	87.5	82.5	75.2	81.6	72.2

자료: 農林部

이제 다시 1961~1971年 사이의 政府의 실제의 糧穀需給統計에 나타난 食糧의 需要量을 보면 다음 <표 5>와 같으며 실제의 需要增加率は 年平均 6.18%이었다. 이 표는 과거 11年間の 政府가 集計한 실제의 消費量이므로 理論的 推計値와는 差異가 있다.

II. 食糧供給의 構造

1. 食糧供給의 分析

經濟發展은 人口增加效果와 所得增加效果를 통하여 食糧需要의 현저한 增加를 자동적으로 隨伴하지만, 그것은 食糧供給은 自動的으로 增加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經濟發展이 推進되는 경우에는 그 一環으로 만드시 食糧供給의 增大를 위한 特別한 計劃과 投資가 併行하여 推進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여 食糧의 需要增加率에 對應하는 供給增加率을 實現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經濟發展途中에 慢性的 食糧不足狀態에 빠지어 마침내는 經濟發展 그 자체를 沮止시키는 가장 큰 沮害要因으로 作用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食糧生産의 增加率は 8.15 解放以後 오늘까지 食糧의 需要增加率에 未及하여 食糧不足狀態가 累積되어 왔으며 食糧需給의 不均衡은 계속 擴大되어 왔다. 이것은 第1次經濟開發計劃이 施行된 1962年以後에도 基本的으로 크게 變함이 없었다. 1961~1971年의 11年間の 總糧穀의 실제의 生産增加率は 3.43%로서 食糧의 실제의 年平均 需要增加率(實績値) 6.18%를 훨씬 下廻하였다. 따라서 食糧의 國內生産으로 食糧의 需要增加를 모두 充當하지 못하고 不足分을 海外로부터 導入하여 補充하였다.

그 결과 食糧의 自給率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 低下되었다. 年度別 自給率을 보면, 1961年에 92.0%, 1962年에 91.3%, 1963年에 76.6%, 1964年에 94.0%, 1965年에 94.2%, 1966年에 95.1%, 1967年에 87.5%, 1968年에 82.5%, 1969年에 75.2%, 1970年에 81.6%, 1971年에 72.2% 이었다. 1972年度의 全體糧穀需給計劃에 의하면 自給率은 71.4%로 더욱 低下되었다.

1971年度의 實績値를 例로 들면 食糧總需要量 12,299千噸(88,015千石)에 대하여 그 59.56%에 해당하는 7,325千噸(52,335千石)만을 國內生産으로 供給하였고, 25.46%에 해당하는 3,131千噸(22,415千石)을 外穀導入으로 供給하였으며, 14.98%에 해당하는 1,843千噸(13,265千石)을 前年度의 移越分으로 供給하였다. 外穀 3,131千噸(22,415千石)을 導入하기 위하여 所要된 外貨는 3億 1,395萬 3,000 弗에 달하였다.⁽⁹⁾

(9) 위의 導入價格은 品目別 導入量을 品目別 國際市場價格으로 換算한 것이다. 基準價格은 農林部の 基準과 같이 1%當 米穀(玄米C&F)이 162弗, 大麥(C&F)이 65弗, 小麥(C&F)이 70

이러한 食糧供給의 構造를 品目別로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米 穀

米穀도 自給率은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61년에 99.5%, 1962년에 101.6%, 1963년에 96.1%, 1964년에 101.3%, 1965년에 100.7%, 1966년에 99.1%, 1967년에 99.1%, 1968년에 94.3%, 1969년에 81.0%, 1970년에 93.1%, 1971년에 82.5%이었다. 1961~1971년의 11年間의 米穀의 年平均 生産增加率은 3.03%로서 실제의 年平均 需要增加率 5.72%를 훨씬 下廻하여 米穀의 不足量이 增加되었다.

<표 6>

米穀의 供給構造 1961~1971

단위 : 千% (千石)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供給											
移越	63 (417)	23 (160)	17 (118)	8 (56)	43 (299)	71 (493)	9 (62)	87 (604)	84 (583)	88 (613)	325 (2,250)
生産	3,047 (21,157)	3,463 (24,045)	3,015 (20,937)	3,758 (26,098)	3,954 (27,462)	3,501 (24,313)	3,919 (27,217)	3,603 (25,022)	3,195 (22,189)	4,090 (28,406)	3,939 (27,356)
導入	—	—	118 (829)	—	—	31 (219)	113 (782)	216 (1,501)	755 (5,244)	541 (3,757)	1,004 (6,928)
計	3,107 (21,574)	3,486 (24,205)	3,150 (21,884)	3,766 (26,154)	3,997 (27,761)	3,603 (25,025)	4,041 (28,061)	3,906 (27,127)	4,034 (28,016)	4,719 (32,776)	5,268 (36,544)
需要											
當年消費	3,062 (21,261)	3,407 (23,656)	3,136 (21,786)	3,709 (25,758)	3,925 (27,261)	3,531 (24,526)	3,954 (27,457)	3,822 (26,544)	3,946 (27,403)	4,394 (30,516)	4,777 (33,176)
輸出	22 (153)	62 (431)	6 (42)	14 (97)	1 (7)	63 (437)	—	—	—	—	—
次年度移越	23 (160)	17 (118)	8 (56)	43 (299)	71 (493)	9 (62)	87 (604)	84 (583)	88 (613)	325 (2,260)	491 (3,368)
計	3,107 (21,574)	3,486 (24,205)	3,150 (21,884)	3,766 (26,154)	3,997 (27,761)	3,603 (25,025)	4,041 (28,061)	3,906 (27,127)	4,034 (28,016)	4,719 (32,776)	5,268 (36,544)
自給率	99.5%	101.6	96.1	101.3	100.7	99.1	99.1	94.3	81.0	93.1	82.5

자료 : 農林部

1971年度의 米穀의 供給構造를 보면, 總米穀需要量 5,268千%(36,544千石)에 대하여 그 74.8%에 해당하는 3,939千%(27,356千石)을 國內生産에 의하여 供給하고, 總米穀需要의 19.06%에 해당하는 1,004千%(6,928千石)을 外國으로부터의 導入에 의하여 供給하였으며, 總米穀需要의 6.17%에 해당하는 325千%(2,250千石)이 前年度로부터의 移越이었다. 米穀供給의 自給率은 1969년부터 현저히 低下되었으나 1971년에 있어서도 自給率 이 82.5%의 水準을 維持하였으므로 總米穀需要量의 全量의 自給化를 위한 緊急對策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米穀自給化는 比較的 短時日에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

弗, 大豆(C&F)가 135弗, 옥수수를 65弗로 計算하였다. 以下 導入價額의 算出에는 모두 이 基準價格을 適用한다.

大 裸 麥

大麥과 裸麥의 自給率은,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61년에 96.3%, 1962년에 91.9%, 1963년에 68.6%, 1964년에 116.1%, 1965년에 104.8%, 1966년에 107.7%, 1967년에 91.9%, 1968년에 99.0%, 1969년에 96.4%, 1970년에 105.0%, 1971년에 93.3%이었다. 1961~1971년의 11年間の 大裸麥의 年平均 生産增加率은 3.03%로서 年平均 需要增加率 2.67%를 약간 上廻하고 있으므로 大裸麥의 全量自給化는 難題는 아니다.

<표 7>

大裸麥의 供給構造 1961~1971

단위 : 千% (千石)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移 越	745 (5,399)	811 (5,877)	719 (5,210)	469 (3,399)	830 (6,014)	983 (7,123)	1,127 (8,166)	958 (6,942)	1,042 (7,550)	1,033 (7,485)	1,127 (8,166)
生 産	1,478 (10,713)	1,378 (9,987)	918 (6,652)	1,515 (10,975)	1,807 (13,094)	2,018 (14,624)	1,916 (13,884)	2,084 (15,098)	2,066 (14,974)	1,974 (14,311)	1,858 (13,466)
導 入	123 (891)	30 (217)	170 (1,234)	151 (1,084)	71 (510)	—	—	106 (765)	67 (486)	—	—
計	2,346 (17,003)	2,219 (16,081)	1,807 (13,096)	2,135 (15,458)	2,708 (19,618)	3,001 (21,747)	3,043 (22,050)	3,148 (22,805)	3,175 (23,011)	3,007 (21,796)	2,985 (21,672)
當 年 消 費	1,535 (11,126)	1,500 (10,871)	1,338 (9,697)	1,305 (9,444)	1,725 (12,495)	1,874 (13,581)	2,085 (15,108)	2,106 (15,255)	2,142 (15,526)	1,880 (13,630)	1,992 (14,436)
輸 出	—	—	—	—	—	—	—	—	—	—	—
次 年 度 移 越	811 (5,877)	719 (5,210)	469 (3,399)	830 (6,014)	983 (7,123)	1,127 (8,166)	958 (6,942)	1,042 (7,550)	1,033 (7,485)	1,127 (8,166)	993 (7,196)
計	2,346 (17,003)	2,219 (16,081)	1,807 (13,096)	2,135 (15,458)	2,708 (19,618)	3,001 (21,747)	3,043 (22,050)	3,148 (22,805)	3,175 (23,011)	3,007 (21,796)	2,985 (21,632)
給 率	96.3%	91.9	68.6	116.1	104.8	107.7	91.9	99.0	96.4	105.0	93.3

자료 : 農林部

1971年度의 大麥과 裸麥의 供給構造를 보면 總大裸麥需要量 2,985千%(21,672千石)에 대하여 그 62.24%에 해당하는 1,858千%(13,466千石)을 國內生産에 의하여 供給하였으며, 總大裸麥需要量の 37.76%에 해당하는 1,127千%(8,166千石)을 前年度로부터의 移越分으로 供給하였다.

小 麥 (및 小 麥 粉)

小麥(小麥粉 包含)의 自給率은,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낮아서, 1961년에 45.5%, 1962년에 38.4%, 1963년에 21.4%, 1964년에 34.5%, 1965년에 37.6%, 1966년에 40.9%, 1967년에 27.9%, 1968년에 23.4%, 1969년에 22.6%, 1970년에 22.9%, 1971년에 18.4%이었다. 1961~1971년의 11年間の 小麥의 年平均 生産增加率은 1.79%로서 실제의 需要增加率 12.32%를 훨씬 下廻하였을 뿐 아니라, 1961년에 있어서도

이미 自給率이 45.5%로서 매우 낮은 水準에 있었기 때문에 小麥의 自給化問題는 매우 深刻하고 比重이 큰 課題임을 알 수 있다.

〈표 8〉

小麥의 供給構造 1961~1971

단위: 千% (千石)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供給											
移越	191 (1,384)	203 (1,471)	172 (1,246)	148 (1,072)	168 (1,217)	166 (1,203)	168 (1,217)	277 (2,007)	172 (1,246)	286 (2,073)	238 (2,449)
生産	280 (2,029)	268 (1,944)	228 (1,651)	309 (2,241)	300 (2,173)	315 (2,285)	310 (2,245)	345 (2,500)	366 (2,650)	357 (2,586)	322 (2,333)
導入	348 (2,491)	398 (2,969)	815 (6,132)	607 (4,545)	496 (3,744)	461 (3,666)	909 (6,690)	1,026 (7,741)	1,369 (9,922)	1,254 (9,279)	1,672 (12,116)
計	819 (5,904)	869 (6,384)	1,215 (9,029)	1,064 (7,858)	964 (7,134)	942 (7,154)	1,387 (10,152)	1,648 (12,248)	1,907 (13,818)	1,897 (13,938)	2,332 (16,898)
需要											
當年消費	616 (4,433)	697 (5,138)	1,067 (7,957)	896 (6,641)	798 (5,931)	774 (5,937)	1,110 (8,145)	1,476 (11,002)	1,621 (11,745)	1,559 (11,489)	1,754 (12,709)
輸出	—	—	—	—	—	—	—	—	—	—	—
次年度移越	203 (1,471)	172 (1,246)	148 (1,072)	168 (1,217)	166 (1,203)	168 (1,217)	277 (2,007)	172 (1,246)	286 (2,073)	338 (2,449)	578 (4,189)
計	819 (5,904)	869 (6,384)	1,215 (9,029)	1,064 (7,858)	964 (7,134)	942 (7,154)	1,387 (10,152)	1,648 (12,248)	1,907 (13,818)	1,897 (13,938)	2,332 (16,898)
自給率	45.5%	38.4	21.4	34.5	37.6	40.9	27.9	23.4	22.6	22.9	18.4

자료: 農林部

1971年度の 小麥(小麥粉 包含)의 供給構造를 보면 總小麥需要量 2,332千%(16,898千石)에 대하여 그 13.81%에 해당하는 322千%(2,322千石)을 國內生産에 의하여 供給하였고, 總小麥需要量の 71.70%에 해당하는 1,672千%(12,116千石)을 外國으로부터 導入하여 供給하였으며, 總小麥需要量の 14.49%에 해당하는 338千%(2,499千石)을 前年度로부터의 移越分으로 供給하였다. 小麥(小麥粉 包含)의 自給化가 韓國의 食糧自給化의 基本問題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玉蜀黍(玉粉包含)

玉蜀黍(및 玉蜀黍粉)의 自給率도 역시 매우 낮아서,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61년에 24.6%, 1962년에 30.8%, 1963년에 16.8%, 1964년에 23.8%, 1965년에 36.1%, 1966년에 54.8%, 1967년에 44.2%, 1968년에 38.0%, 1969년에 25.8%, 1970년에 18.9%, 1971년에 15.7%이었다. 1961~1971년의 11年間의 玉蜀黍의 年平均 生産增加率은 19.89%로서 年平均 需要增加率 31.23%를 下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61년부터 이미 自給率은 매우 낮은 狀態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玉蜀黍가 食糧으로서만이 아니라 飼料와 工業用原料로서 일찍부터 美剩餘農産物의 導入에 의하여 供給되어 왔기 때문이다.

<표 9>

옥수수 수의 供給構造 1961~1971

단위 : 千% (千石)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給 移 越	—	—	—	—	—	—	—	6 (44)	39 (289)	32 (237)	46 (340)
生 産	14 (101)	16 (120)	18 (130)	20 (151)	35 (257)	40 (296)	34 (250)	60 (441)	63 (467)	63 (464)	68 (502)
導 入	43 (434)	36 (358)	89 (807)	64 (628)	62 (616)	33 (321)	49 (416)	131 (1,035)	174 (1,287)	284 (2,101)	388 (2,874)
計	57 (535)	52 (478)	107 (937)	84 (779)	97 (873)	73 (617)	83 (666)	197 (1,520)	276 (2,043)	379 (2,802)	502 (3,716)
要 當 年 費 用	57 (535)	52 (478)	107 (937)	84 (779)	97 (873)	73 (617)	77 (622)	158 (1,231)	244 (1,806)	333 (2,462)	433 (3,205)
輸 出	—	—	—	—	—	—	—	—	—	—	—
次 年 度 移 越	—	—	—	—	—	—	6 (44)	39 (289)	32 (237)	46 (340)	69 (511)
計	57 (535)	52 (478)	107 (937)	84 (779)	97 (873)	73 (617)	83 (666)	197 (1,520)	276 (2,043)	379 (2,802)	502 (3,716)
給 率	24.6	30.8	16.8	23.8	36.1	54.8	44.2	38.0	25.8	18.9	15.7

자료 : 農林部

1971年度の 玉蜀黍의 供給構造를 보면 總玉蜀黍需要量 502千%(3,716千石)에 대하여 그 13.55%에 해당하는 68千%(502千石)만을 國內生産에 의하여 供給하였고, 總玉蜀黍需要量의 77.29%에 해당하는 388千%(2,874千石)을 海外로부터의 導入에 의하여 供給하였으며, 總玉蜀黍需要量의 9.16%에 해당하는 46千%(340千石)을 前年度로부터의 移越分으로 供給

<표 10>

薯類의 供給構造 1961~1971

단위 : 千% (千石)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給 移 越	—	—	—	—	—	—	—	—	—	—	—
生 産	326 (2,546)	383 (2,992)	439 (3,415)	514 (3,983)	936 (7,246)	1,045 (8,085)	972 (7,531)	631 (4,904)	759 (5,889)	779 (6,034)	783 (6,076)
導 入	—	—	—	—	—	—	—	—	—	—	—
計	326 (2,546)	383 (2,992)	439 (3,415)	514 (3,983)	936 (7,246)	1,045 (8,085)	972 (7,531)	631 (4,904)	759 (5,889)	779 (6,034)	783 (6,076)
要 當 年 費 用	326 (2,546)	383 (2,992)	439 (3,415)	514 (3,983)	936 (7,246)	1,045 (8,085)	972 (7,531)	631 (4,904)	759 (5,889)	779 (6,034)	783 (6,076)
輸 出	—	—	—	—	—	—	—	—	—	—	—
次 年 度 移 越	—	—	—	—	—	—	—	—	—	—	—
計	326 (2,546)	383 (2,992)	439 (3,415)	514 (3,983)	936 (7,246)	1,045 (8,085)	972 (7,531)	631 (4,904)	759 (5,889)	779 (6,034)	783 (6,076)

자료 : 農林部

하였다. 玉蜀黍의 供給問題도 食糧自給化의 基本問題의 하나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薯 類

薯類의 供給은 <표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國內生産만으로 消費하고 있으며, 海
外로부터의 導入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薯類는 完全히 自給化되어 있으므로 食糧自給
化와 關聯하여 큰 問題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薯類의 生産은 1966년까지는 현저히 成長하다가 1967년부터는 減少된 채 停滯되
어 있다. 1961~1971년의 11年間의 薯類의 年平均 生産增加率은 10.48%이었다. 薯類가
그 品目の 特徵上 容積이 크고 長期保管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海外導入은 없으나, 그 生
産의 停滯는 큰 問題를 갖고 있다. 薯類는 他食糧에 대하여 代替品目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工業原料로서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薯類의 生産·供給增加의 問題는
食糧自給化問題의 一環으로 논의되어야 할 性格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大 豆

大豆의 自給率은, <표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61년에 85.5%, 1962년에 91.2%,
1963년에 94.0%, 1964년에 95.1%, 1965년에 100.0%, 1966년에 100.0%, 1967년에 87.
0%, 1968년에 90.1%, 1969년에 93.5%, 1970년에 86.1%, 1971년에 82.6%이었다. 1961
~1971년의 11年間의 大豆의 年平均 生産增加率은 6.54%로서 年平均需要增加率 7.54%를

<표 11>

大豆의 供給構造 1961~1961

단위 : 千噸(千石)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供給											
移 越	—	—	—	—	—	—	—	5 (37)	—	7 (52)	6 (41)
生 産	130 (962)	165 (1,221)	156 (1,154)	156 (1,158)	163 (1,206)	174 (2,292)	161 (1,195)	201 (1,492)	245 (1,817)	229 (1,697)	232 (1,718)
導 入	22 (160)	16 (120)	10 (75)	9 (66)	—	—	29 (214)	17 (129)	24 (178)	36 (269)	67 (497)
計	152 (1,122)	181 (1,341)	166 (1,229)	164 (1,224)	163 (1,206)	174 (1,292)	190 (1,409)	223 (1,658)	269 (1,995)	272 (2,018)	305 (2,256)
需要											
當 年 消費	152 (1,122)	181 (1,341)	166 (1,229)	164 (1,224)	163 (1,206)	174 (1,292)	185 (1,372)	223 (1,658)	262 (1,943)	216 (1,977)	281 (2,078)
輸 出	—	—	—	—	—	—	—	—	—	—	—
次 年 度 移 越	—	—	—	—	—	—	5 (37)	—	7 (52)	6 (41)	24 (178)
計	152 (1,122)	181 (1,341)	166 (1,229)	164 (1,224)	163 (1,206)	174 (1,292)	190 (1,409)	223 (1,658)	269 (1,995)	272 (2,018)	305 (2,256)
自給率	85.5	91.2	94.0	95.1	100.0	100.0	87.0	90.1	93.5	86.1	82.6

자료 : 農林部

약간 下廻하고 있다.

1971年度の 大豆의 供給構造를 보면 總大豆需要量 305千% (2,256千石)에 대하여 그 76.07%에 해당하는 232千% (1,718千石)을 國內生産에 의하여 供給하였고, 總大豆需要量の 21.97%에 해당하는 67千% (497千石)을 海外로부터 導入하여 供給하였으며, 總大豆需要量の 1.96%에 해당하는 6千% (41千石)을 前年度로부터의 移越에 의하여 供給하였다. 大豆 供給의 對外依存率은 總供給의 17.4%에 달하여 높은 水準을 나타내고 있으나, 總供給量 자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實量에 있어서는 큰 몫을 占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大豆가 國民의 榮養(특히 단백질)을 供給하는 重要한 品目이므로 앞으로의 需要增加에 따르는 生産增加의 持續的 達成에 큰 問題點이 있다고 하겠다.

其他 (豆類中 大豆除外, 雜穀中 옥수수 除外)

지금까지 고찰한 品目以外の 諸雜穀(豆類中에서 大豆를 除外하고 雜穀中에서 玉蜀黍를 除外한 나머지 雜穀)의 供給實績을 보면 <표12>와 같다. 여기에 포함된 品目들은 1965年以後에는 完全히 自給化되어 海外로부터의 導入이 없는 品目들이다. 이 品目들은 앞으로 海外로부터 導入하여 需要에 充當할 蓋然性은 없고, 주로 앞으로 계속 발생할 需要增加에 對應하여 國內의 生産增加를 어떻게 達成할 것인가의 問題를 갖고 있는 品目들이다.

<표 12>

其他雜穀의 供給構造1961~1971

단위 : 千% (千石)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給 移 越	3 (22)	4 (30)	4 (30)	2 (15)	1 (7)	-	-	-	-	10 (69)	1 (9)
生 産	130 (962)	147 (1,080)	142 (1,039)	149 (1,081)	148 (1,072)	151 (1,107)	134 (977)	113 (818)	169 (1,222)	138 (994)	123 (884)
導 入	- (3)	2 (14)	21 (158)	10 (69)	5 (40)	-	-	-	-	-	-
計	133 (987)	153 (1,124)	167 (1,227)	161 (1,165)	154 (1,119)	151 (1,107)	134 (977)	113 (818)	169 (1,222)	148 (1,063)	124 (893)
要 當 年 費 用	127 (942)	147 (1,079)	164 (1,205)	160 (1,158)	148 (1,075)	147 (1,078)	130 (948)	111 (803)	155 (1,123)	142 (1,024)	119 (856)
輸 出	2 (15)	2 (15)	1 (7)	-	6 (44)	4 (29)	4 (29)	2 (15)	4 (30)	5 (30)	5 (37)
次 年 度 移 越	4 (30)	4 (30)	2 (15)	1 (7)	-	-	-	-	10 (69)	1 (9)	-
計	133 (987)	153 (1,124)	167 (1,227)	161 (1,165)	154 (1,119)	151 (1,107)	134 (977)	113 (818)	169 (1,222)	148 (1,063)	124 (893)
給 率	102.4	100.0	86.1	93.1	100.0	101.3	103.1	101.8	109.0	97.2	103.4

자료 : 農林部

食糧自給化의 問題는 우선 現實的으로 현재의 導入糧穀을 國內生産으로 輸入代替하고 앞으로 계속 需要增加率에 對應하여 國內生産增加率을 持續시켜나가는 問題로서 부각된다. 食糧自給化를 達成하려고 할 경우 輸入代替의 第一次의 對象이 될 導入糧穀의 過去 3年間의 導入實績을 重量으로 보면 1969年の 경우에는 小麥이 1,369千%로서 同年의 總導入量의 57.3%를 차지하고, 다음이 米穀의 755千%로서 總導入量の 31.6%를 차지하며 다음이 옥수수의 174千%로서 總導入量の 7.3%를 차지하고, 다음이 大麥의 67千%로서 總導入量의 2.8%를 차지하며, 끝으로 大豆가 24千%로서 1.0%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金額으로 換算하면, 그 比重이 轉倒되어 米穀이 1億2,231萬弗로서 總액의 51.6%를 차지하고, 다음이 小麥의 9,583萬弗로서 40.4%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옥수수가 4.8% 大麥이 1.8%, 大豆가 1.4%의 比重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1970년의 外穀導入實績은, 重量으로 볼 때 小麥이 1,254千%로서 總導入量의 59.3%를 차지하며 다음이 米穀의 541千%로서 總導入量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 옥수수가 284千%로서 總導入量의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大豆가 36千%로서 總導入量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導入價額으로 換算하여 보면 小麥이 8,778萬弗로서 總導入價額

<표 13> 最近三年間の 品目別 外穀導入量 단위 : 千%

	1969		1970		1971	
	導入量	%	導入量	%	導入量	%
米 穀	755	31.60	541	25.58	1,004	32.07
大 麥	67	2.80	—	—	—	—
小 麥	1,369	57.30	1,254	59.29	1,672	53.40
옥 수 수	174	7.28	284	13.43	388	12.39
大 豆	24	1.01	36	1.70	67	2.14
計	2,389	100.00	2,115	100.00	3,131	100.00

<표 14> 最近三年間の 品目別 外穀導入價額 단위 : 千%

	1969		1970		1971	
	導入價額	%	導入價額	%	導入價額	%
米 穀	122,310	51.60	87,642	44.10	162,648	51.81
大 麥	4,355	1.84	—	—	—	—
小 麥	95,830	40.43	87,780	44.17	117,040	37.28
옥 수 수	11,310	4.77	18,460	9.29	25,220	8.03
大 豆	3,240	1.36	4,860	2.44	9,045	2.88
計	237,045	100.00	198,742	100.00	313,953	100.00

의 44.2%에 해당하고, 米穀이 8,764萬弗로서 總導入價額의 44.1%를 차지하여 두 品目이 같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옥수수가 1,846 萬弗로서 總導入價額의 9.3%를, 大豆가 486 萬弗로서 2.4%의 比重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한편 1971 年의 外穀導入實績의 重量을 品目別로 보면 小麥이 1,672千%로서 總導入量의 33.4%를 차지하고 있고, 米穀이 1,004千%로서 總導入量의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옥수수가 388千%로서 12.4%, 大豆가 67千%로서 總導入額의 2.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導入價額으로 換算하여 보면, 그 比重이 轉倒되어 米穀이 1億 6,264萬 8,000 弗로서 總導入價額의 51.8%를 차지하고 있고, 小麥이 1億 1,704萬弗로서 總導入價額의 3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옥수수가 2,522萬弗로서 8.0%, 大豆가 904萬 5,000 萬弗로서 總導入價額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뚜렷이 알 수 있는 것은 導入重量에 있어서는 小麥이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나 導入價額에 있어서는 米穀의 國際市場價格이 小麥보다 高價임으로써 米穀이 언제나 首位의 比重을 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71 年의 경우를 예로 들면, 總外穀導入額 3億 1,395萬 3,000弗중에서 米穀의 導入만이라도 중단하여 國內生産에 의하여 代替하는 경우에는 1億 6,264萬 8,000弗의 外換을 節約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위의 4 가지 外穀導入品目の 미래의 自給化 可能性을 再檢討하는 資料로서 참고하기 위하여 그 과거 11 年間(1961~1971)의 年平均 需要增加率과 生産增加率을 보면 <표15>와 같다.

즉 米穀은 실제의 需要增加率이 5.72%이었는데 대하여 國內生産增加率은 3.03%로서 年平均 2.69%의 격차가 存在하였다. 한편 小麥의 실제의 需要增加率은 12.32%이었는데 대하여 國內生産增加率은 1.79%로서 그 격차는 무려 年平均 10.53%에 달하고 있었다.

<표15> 品目別 需要增加率과 國內生産增加率(1961~71年平均)

	需 要 增 加 率	國 內 生 産 增 加 率
總 糧 穀	6.18 %	3.43 %
○米 穀	5.72	3.03
大 裸 麥	2.67	3.03
○小 麥	12.32	1.79
○옥 수 수	31.23	19.89
薯 類	10.48	10.48
○大 豆	7.54	6.54
其 他	-0.13	0.05

주: 1) ○표는 外穀 導入 品目.
2) 農林部資料에서 算出.

옥수수의 需要增加率は 31.23%이었고 國內生産增加率は 19.89%로서 年平均 11.34%의 격차가 있었으며, 大豆의 需要增加率は 7.54%이었는데 대하여 國內生産增加率は 6.54%로서 年平均 1.0%의 격차가 존재하였었다. 만일 이러한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하던 食糧自給化의 問題는 畓作에 있어서의 生産增加의 問題보다 田作에 있어서의 生産增加의 問題가 더욱 심각한 課題로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1971 년의 外穀總導入量의 85.47%, 外穀總導入價額의 89.09%를 차지한 두개의 品目인 米穀과 小麥의 경우에 있어서 小麥의 國內生産不足과 需給不均衡이 가장 심각한 課題로 부각되어 있음을 明白히 알 수 있다. 이것은 米穀增産과 함께 小麥增産이 食糧自給化의 達成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品目中 增産可能性이 더욱 큰 品目이 戰略的 品目으로서의 性格을 갖게 된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食糧自給化의 基本問題가 畓作에 있어서의 增産問題라고 보는 常識的 見解와는 달리 그것이 더욱 기본적으로 田作에 있어서의 增産問題로 압축되어 있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

이러한 供給構造의 問題를 의식하면서 畓作과 田作에 있어서의 增産可能性을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2. 食糧增産의 可能性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은 食糧의 不足分을 國內에서의 生産增加를 통하여 供給하고, 앞으로의 需要增加에 對應하여 持續的인 生産增加를 實現하여 食糧需給의 長期的 移動均衡을 維持하려고 할 경우에 과연 生産技術面에서 食糧增産의 可能性은 充分히 存在하는 것인가?

이 문제는 엄밀하게는 農業技術의 問題이지만, 만일 주어진 技術水準下에서 農業技術上으로 增産의 可能性이 食糧自給化水準에 未達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食糧自給化의 可能性은 制約을 받는 것이므로 이 문제를 農村振興廳의 資料를 使用하여 극히 간단히 검토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로 한다.

生産技術面에서 볼 때 食糧增産의 方法은 크게 두가지 方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平面的, 外延的 方法으로서 耕地面積 또는 植付面積을 擴張하는 方法이고, 그 둘째는 立體的, 內充的 方法으로서 耕地의 單位當 生産性を 높이는 方法이다. 이 두가지 方法의 內容을 간단히 提示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¹⁰⁾

(10) Theodore W. Schultz는 食糧增産을 基本的 生産要素의 供給增加로 이해하고 그 增産方法으로서 ①Discovery of additional resources, ②Accumulation of additional capital, ③New and better technique, ④Growth in population, ⑤Improvements in skills, ⑥Other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modifications 등을 들고 있다. Theodore W. Schultz, *The Economic*

(7) 外延的 方法

① 未墾地의 開墾, ② 海·湖·沿·池 등의 埋立, 干拓, ④ 漁獲區域의 擴大, ⑤ 多毛 作栽培.

(L) 內充的 方法

① 土壤의 改良, ② 水利灌溉施設의 改善, ③ 品種改良, ④ 新農業技術의 導入 ⑤ 病蟲 害防除, ⑥ 經營規模의 擴大, ⑦ 生産構造의 改善, ⑧ 農機具의 改良, ⑨ 새로운 食糧의 發見과 創造.

生産增加의 技術의 可能性을 檢討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諸項目을 모두 논의하여야 할 것이나 이 問題는 農科大學에서 精密히 檢討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몇가지 事例만을 간 단히 보기로 한다.⁽¹¹⁾

畝作에 있어서의 生産增加의 可能性

(1) 品種改良

農村振興廳의 報告를 綜合하여 보면 벼의 品種改良에 의하여 적어도 15~30%의 增産이 可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農林糯 1號·農林糯 26號 및 田子金糯는 中北部 및 南部 山間地의 天水畝地帶에 普 及하고 있는 多收性이며 比較的 耐旱性이 強한 새로운 獎勵品種으로서 종래의 尾張糯에 比하여 各各 약 33%, 22%, 18%의 增收가 可能하다고 報告되고 있다.

關玉은 새로 育成된 稻熱病抵抗品種으로서 中北地方一帶와 稻熱病被害가 많은 地帶에 獎勵되는 品種인 바, 그 增收量은 各 地方의 標準品種의 差異에 따라 地域差가 크게 나타 나고 있으나 平均 18%가 增收되며, 最低 6%로부터 最高 39%의 增收가 可能한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

Organization of Agriculture, 1953, pp.5-20, 參照.

한편 Doreen Warriner는 食糧增産의 方法을 垂直的 方法과 水平的 方法으로 區分하고 에짚 트를 모델로 하여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A. Vertical Expansion (Intensification of production)

①Investment to irrigation, ②Increased supply of pesticide, ③Heavier use of fertilizers, ④Technical advance, ⑤Large scale operation, ⑥Unified rotation ⑦Supervised credit by cooperatives.

B. Horizontal Expansion

①The extension of cultivated area.

Doreen Warriner, *Land Reform and Development in Middle East—A study of Egypt, Syria and Iraq*—,1962, p.199 ff 이하 참조.

(11) 以下 모든 增收可能性의 計數는 政府(주로 農村振興廳)의 發表에서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부 분을 극히 간략히 간추린 것이며, 그 增收效果를 일기 위하여 부가해서 고찰하여야 할 문제점 들은 技術的인 것들이므로 여기서는 省略되어 있다.

八錦은 山間地를 除外한 忠南·全南北·慶南의 全地域과 干拓地에 普及하고 있는 多收性 新品種으로서 平均 14%가 增收되며, 最低 3%로부터 最高 37%의 增收가 可能한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 ⁽¹²⁾

IR 667(통일 벼)는 현재 農村振興廳의 計測에 의하면 약 30~34%의 增收가 可能하다고 報告되고 있다. ⁽¹³⁾ 물론 이 新品種의 普及에는 秋收直前의 脫粒性, 生糞의 短少, 食味の 差異, 排水施設의 改善, 搗精施設의 改編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이 新品種의 높은 增收効果에 비추어 보면 얼마든지 克服될 수 있는 문제들이며, 團地農業이나 集團栽培를 통하여 技術支援을 集中的으로 施行할 수도 있는 것이다.

IR667을 제외하고도 獎勵品種으로 選定된 水稻의 新品種을 導入하였을 경우 早生種에 있어서는 在來品種에 비하여 普通肥料栽培에서 平均 10~12%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으며 多肥栽培에 있어서 平均 22~37%의 增收率을 보이고 있다. 또한 中生種의 경우 獎勵品種은 在來品種에 비하여 普肥栽培에서 平均 6~13%의 增收率을 보이고 있으며, 多肥栽培에서 9~22%의 增收率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晚生種의 경우 獎勵品種은 在來種에 비하여 普肥栽培에서 平均 8~13%의 增收率을 보이고 있으며, 多肥栽培에 있어서는 平均 10~14%의 增收率을 보이고 있다. ⁽¹⁴⁾

(2) 深耕多肥栽培

현재의 深耕 7~9cm에서 이를 2倍深耕 2倍多肥를 施用하였을 경우 平均 28%의 增收가 나타났으며, 3倍深耕 2倍多肥를 施用하였을 경우에는 平均 26%의 增收를 結果하였고 3倍深耕 3倍多肥를 施用하였을 경우에는 平均 29%의 增收를 結果하였다고 報告되고 있다. ⁽¹⁵⁾

또한 2倍深耕 2倍多肥의 경우 72株를 植었을 경우의 增收率은 平均 28%이었으나 이를 密植栽培와 結合시키어 108株 植었을 경우에는 平均 33%의 增收效果가 있었으며, 144株를 密植하였을 경우에는 平均 36%의 增收效果가 나왔다고 報告되고 있다. ⁽¹⁶⁾

(3) 低位生産畝의 改良

현재 調査된 것 만도 약 34萬町步의 低位生産畝이 特殊한 土壤條件으로 달미암아 生産性이 異例의으로 낮은 土壤으로 되어 있는 바, 이들 重粘土·砂礫土·微砂土·濕畝·泥

(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조사월보』, 1968년 6월호.

(13) 農林部, 『통일쌀 집단재배단지 선정사항 보고』, 1972.

(14) 서울대학교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經濟發展과 食糧問題』, 1965, pp.158-160, 參照..

(15) 農村振興廳, 『主要食糧作物增產의 基礎資料』, p.20, 參照.

(16) 『前掲書』.

炭土·火山灰土·特異酸性土·特殊性分缺乏土·鑛毒地·鹽害地·退化鹽土·其他特殊土壤에 대해서는 그 土性의 不良條件을 矯正하는 改良劑 즉 泥土·slag·硅酸石灰·活性鐵·赤土·深耕反轉·不透層破壞·石灰 등을 施用하면 그것만으로도 平均 10%의 增收效果를 結果한다고 報告되고 있다.⁽¹⁷⁾

에컨대 客土만의 增加效果도 平均 9%가 되며, 客土와 堆肥增施가 結合되면 13%, 客土와 穗肥가 結合되면 19%가 增收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¹⁸⁾

(4) 早期早植栽培

早期栽培은 비닐保溫밭곳자리에 3月中旬頃에 播種하여 5月初에 移秧하고 8月中旬에 收穫하는 것이며, 早植栽培은 비닐保溫밭곳자리에 4월 5日頃 播種하여 5月中旬頃 移秧하고 9月中旬頃에 收穫하는 것이다. 早期早植栽培의 增收效果를 보면, 早植栽培가 普通栽培八達보다 16~23% 增收되었고, 早植栽培은 15~18%의 增收效果가 있는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¹⁹⁾

(5) 水稻點式 移秧

1967年度까지는 4點 5條式 移秧을 勸獎하여 왔으나, 1968年度부터는 4點 前進式 移秧을 勸獎하고 있는 바, 그 增收效果는 慣行式에 比하여 7~10%가 增收되는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

또한 4點式 移秧과 硅酸施用 또는 穗肥가 結合되면 平均 15%가 增收되고, 早期栽培과 結合되면 17%가 增收되는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²⁰⁾

(6) 乾畚直播栽培

二毛作을 하지 않는 天水畚이나 水利不安全畚에 乾畚直播栽培을 하면 普通期 移秧에 比하여 30~40%가 增收되는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²¹⁾

(7) 有機質肥料의 活用

有機質肥料로서의 堆肥를 10a 當 750kg 으로부터 1,500kg 으로 2倍增投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20% 이상의 높은 增收效果가 나왔으며, 堆肥 대신 生糞과 金肥를 併用한 경우에는 다시 그 위에 14%의 增收效果가 있었다고 報告되고 있다.⁽²²⁾

(17)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前揭書』, pp.146-148, 參照.

(1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前揭書』.

(19) 『前揭書』.

(20) 『前揭書』.

(21) 『前揭書』.

(22) 農村振興廳, 『主要食糧作物增產의 基礎資料』.

(8) 施肥法改善

水稻에 窒素質肥料를 基肥로 施用할 때 全層施肥를 하면 慣行式의 表面施肥보다 6~14%가 增收되는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

水稻移秧栽培의 경우에는 有機質調合肥料·有機化成肥料 또는 粒狀第4種複合肥料를 施用한 結果 慣行單肥 보다 30%나 增收되었으며, 乾畚直播栽培의 경우에는 單肥를 全量 基肥로 施用하는 것보다 11%가 增收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安全多收穫을 위하여 硅酸質肥料를 施用하면 9%가 增收되고, 全層施肥와 結合되면 14%, 穗肥와 結合되면 15%의 增收效果가 있는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²³⁾

田作에 있어서의 生産增加의 可能性

(1) 酸性土壤의 改良

麥類나 豆類와 같이 酸性土壤을 기피하는 作物에 대해서는 石灰를 施用하여 酸性土壤을 最適酸度의 土壤으로 矯正함으로써 높은 增收效果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大麥生産에 있어서 酸性土壤에 石灰를 施用하여 酸度を 矯正하는 경우, 無石灰 三要素區에 比하여 石灰全量施用三要素區에서는 56.7%의 增收效果가 나타나고 있으며, 堆肥와 石灰를 施用한 三要素區에서는 무려 65.6%의 높은 增收效果가 나오는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 또한 大豆生産에 있어서 밭고랑에 反步當 30貫의 石灰를 施用한 경우 71%의 높은 增收效果를 얻을 수 있다고 報告되고 있다.⁽²⁴⁾

(2) 品種改良 및 新品種

大麥新品種「麗岐」는 忠北·忠南·全北地方에 걸쳐 그 地方의 標準品種 보다 7~11%의 增收가 可能하며, 「杭眉」는 京畿·江原·慶北地方의 標準品種 보다 6~43%의 增收가 可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大豆新品種인 「光豆」는 「長湍白目」보다 17% 增收되며, 「힐」은 「長湍白目」보다 103% 즉 2배의 增收가 可能하다고 報告되고 있다.

多收性 雜種옥수수 「黃玉 1號」는 在來種 보다 41%, 「複交 1號」는 在來種보다 70%가 增收되었다.

導入 수수新品種「기자 54號」는 在來種에 比하여 48~109%의 增收가 可能한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²⁵⁾

(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조사월보』, 1968년, 6월호.

(24) 農村振興廳, 『前掲書』.

(2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前掲書』.

(3) 麥類廣播 및 移植栽培

麥類廣播栽培은 普通栽培보다 25%가 增收되고, 移植栽培은 44%의 增收가 可能하다고 報告되고 있다. 그러나 廣播栽培에는 肥料가 增施되어야 한다. (26)

(4) 施肥法의 改善

大麥에 대하여 窒素質을 주로 施用하는 慣行區에 比하여 磷酸과 加里를 併用한 三要素區에서는 38%의 增收效果가 나왔다.

또한 大豆에 있어서 慣行區에 比하여 磷酸・加里를 施用한 展示圃에 있어서는 平均 19%, 最低 5%, 最高 41%의 增收效果가 可能하다고 報告되고 있다. (27)

(5) 大豆移植摘芯栽培

麥後作大豆栽培에 있어서 移植을 하고 本葉 5枚 完全展開時에 摘芯을 한 것은 直播普通栽培에 比하여 51%의 增收效果가 있으며, 早植單作의 경우에는 54%의 增收效果가 있는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 (28)

(6) 馬鈴薯의 催芽早植과 早期收穫

馬鈴薯의 催芽早植은 無催芽在來式栽培에 比하여 18~57%의 增收效果가 있다고 報告되고 있다. (29)

지금까지의 간단한 고찰에서 明白하여지는 것은 現在の 技術水準下에서 生産技術의 面에서는 食糧自給化의 達成을 위한 增産의 可能性은 얼마든지 있다는 事實이다. 畚作에 있어서만 그럴 뿐 아니라 특히 田作에 있어서는 주어진 技術水準下에서도 畚作보다 훨씬 높은 增産可能性이 潛在해 있음을 注目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農業生産의 技術水準은 날로 發展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食糧自給化를 阻害할 技術的 要因은 본질적으로는 存在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新技術이 農業經營者에게 受容되지 않는 要因도 이것을 經濟的, 社會的 側面에서 고찰할 必要性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畚作과 田作에 있어서의 增産可能性을 다른 각도에서 再確認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生産條件을 갖인 日本의 土地生産性を 比較하여 보면, <표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米穀의 反步段產出量이 平年作에 있어서 日本은 375.7kg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그것은 237kg 으로서 日本의 63.1%에 불과하다. 또한 大麥의 反步當產出量은 日本

(26) 『前掲書』.

(27) 農村振興廳, 『前掲書』.

(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前掲書』.

(29) 『前掲書』.

<표 16>

韓・日間の 土地生産性比較

區 分	腐 植 含 量(%)		反 當 收 量(kg)	
	畜	田	米 穀	小 麥
日 本	4.55%	6.47%	237.5	250
韓 國	2.94%	2.24%	237	88
日本과의 對比	64.6	34.6	63.1%	34.9%

자료 : 農村振興廳.

의 경우 286 kg 인데 比하여 우리나라의 그것은 111kg으로서 日本의 39%에 불과하며 小麥의 경우에는 日本의 反步當產出量이 250kg인데 比하여 우리나라의 그것은 138kg으로서 日本의 小麥의 土地生産性的 34.9%에 不過하다.

여기서 明白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어진 技術水準下에서도 田作에 있어서의 土地生産性 提高의 可能性이 매우 높다는 事實이다. 이 점은 우리나라의 食糧自給化의 達成이 戰略的으로 田作에 있어서의 급속한 生産性增大問題와 直結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3. 食糧不足이 經濟發展에 미치는 影響

經濟發展에 隨伴하여 食糧需要가 급격히 增加하는 한편 食糧의 生産・供給은 이를 따라 가지 못하여 食糧不足이 發生하는 경우, 經濟發展은 바로 이 食糧不足의 要因에 의하여 크게 沮害된다.

만일 閉鎖體系를 가정하는 경우에 農業部門을 開發하지 못하여 食糧不足이 일어났다고 假定하면 食糧不足은 不可避하게 農產物價格의 暴騰을 가져오고, 그 결과 農產物價格의 暴騰은 勤勞者와 俸給生活者에게는 生計費를 暴騰시키며, 企業家에 대해서는 賃金率과 生産費의 급격한 上昇을 가져온다. 그 결과 一定期間이 지나면 經濟의 全般的인 惡性「인플레이션」이 支配하게 되며, 이것은 國民의 實質所得과 貯蓄水準을 低下시키어 資本形成을 沮害하고 金銀 등 貴金屬에의 價値退藏, 不動產投資 등 貴重한 資本의 非生産的 投資를 誘發하여 經濟發展을 크게 沮害한다. 또한 惡性「인플레이션」을 收拾하기 위한 無理한 緊縮通貨政策은 財政投融资 또는 金融機關의 産業資金의 貸出抑制을 不可避하게 하여 결국 經濟發展을 沮害한다. 만일 産業資金이 政策的으로 貸出되는 경우를 가정할지라도 企業家에 대해서는 이것은 對內的으로 利潤率低下와 貯蓄率低下의 逆流效果를 가져오고 對外的으로는 自國商品의 競爭力을 弱화시키며 다시 이것은 投資率低下를 가져와서 결국 經濟發展을 沮害한다. 즉 食糧不足은 모든 階層에게 經濟的 負擔과 苦痛을 주고, 經濟發展을 沮害하며,

이것이 惡性「인플레이션」과 결부될 때는 經濟開發計劃은 「인플레이션」收拾을 위하여 사실상 中斷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음, 開放體系를 가정하는 경우에는 食糧不足으로 惡性「인플레이션」이 支配하게 되기에 食糧不足分을 海外로부터 導入하여 危機를 避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莫大한 外換을 食糧導入分으로 支出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食糧不足이 慢性化되면 國內食糧生産이 增加하여 需要와 供給의 均衡이 이루어질 때까지 一, 二年이 아니라 長期間에 걸쳐 海外로부터의 食糧導入을 계속하여야 하므로 실로 莫大한 外換이 累年 所 要된다. 開發途上國은 이미 慢性的인 外換不足狀態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不足한 外換도 經濟發展을 위한 施設財의 導入에 使用하여야 하며 그러기에도 不足한 어려운 狀態에 있다. 즉 經濟開發計劃을 推進하고 있는 開發途上國에서는 開發에 절대 不可缺한 各種 플란트 등 施設財 導入을 위하여 外換을 支出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工場建設을 위한 施設財 導入에 使用하여야 할 外換은 이미 恒常的으로 매우 不足한 狀態에 있어 工業化가 制約되고 있으며, 따라서 開發途上國에서는 精密한 外換需給計劃을 樹立하여 그 使用을 合理化하려고 試圖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食糧輸入을 위하여 外換을 支出하는 것은 이 貴重한 外換의 浪費支출이 되며, 經濟開發을 위한 施設財導入을 抑制케 하고, 外換需給計劃에 蹉跌을 가져오며, 대체로 逆調狀態에 있는 國際收支를 더욱 惡化시키어 經濟發展을 阻害하게 된다.

이 때, 開發途上國은 海外로부터 不足食糧을 導入하는 경우에 不足量보다 食糧을 약간 超過導入하여 農產物價格(食糧價格)을 大幅 低下시키고자 하는 個別企業의 誘惑에 빠지기 쉽다. 왜냐하면 食糧은 賃金財이며 食糧價格을 大幅 떨어뜨리는 것은 賃金率을 떨어뜨려 利潤率을 增大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農產物價格이 暴落하면 農業生産이 停滯되기 때문에 食糧不足은 恒久化되어 버리고 만다. 따라서 不足食糧의 超過導入에 의한 低農產物價格 政策下에서는 食糧不足과 經濟發展과의 關係의 惡循環은 長期化되며, 이 惡循環을 斷切하여 良循環으로 矯正하기 위해서는 價格政策上의 一大轉換이 不可避하게 要請된다.

여기에서 당연히 나오는 主張의 하나가, 종래 우리나라에서도 支配했던 것과 같이, 國際市場價格이 低廉한 海外糧穀을 導入하여 供給不足分을 充當하는 것이 不足한 資本을 生産性이 낮은 農業部門에 莫大하게 投資하는 것보다 經濟發展에 有利하다는 主張이다. 이러한 主張은 食糧自給化의 論議는 經濟的 論議가 아니라 政治的 心理的 觀點에서의 論議라고 主張한다. 그들의 이러한 主張은 經濟的으로 어느 정도 妥當性을 갖는 것인가?

食糧自給化의 論議에 否定的 立場을 취하고 貨幣論的 比較生産費說에 立脚하여 國際市

場價格이 低廉한 海外農產物 導入을 主張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事實을 看過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그들의 모든 假定이 短期的이며 靜態적이다. 短期的으로는 食糧의 國際市場價格이 食糧의 國內生産보다 상당한 정도로 低廉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農業開發을 위한 本格的 投資가 施行되기 以前의 現象이고, 食糧增産을 위하여 合理的인 本格的 投資가 施行되던 農產物價格의 國際比較에 있어서도 그것이 平準化될 뿐 아니라 勞動力이 상대적으로 豊富한 곳에서는 勞動費用의 低下, 輸送費 및 保管費의 激減 등으로 國內自給化의 편이 더욱 低廉하게 된다는 事實을 看過한 것이다. 또한 그들의 假定은 食糧生産을 完全히 孤立된 別個의 部門으로 靜態적으로 보아 그것을 貨幣적으로 外國의 農業에 聯關시키고 있을 뿐, 食糧生産 部門과 國內의 他部門, 他產業과의 關聯과 循環을 전혀 動態적으로 把握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그들의 主張과 같이 不足食糧을 國內에서 生産·供給하지 않고 外國에서 導入하는 경우 國內의 農業과 工業의 不均等成長을 激化시키어 國民經濟의 二重構造를 深化한다는 事實을 看過하고 있다. 經濟의 二重構造가 深化되고 農業部門이 外國의 導入農產物の 壓力으로 萎縮되어 停滯되던 農民의 農業所得이 低下되고, 農業과 工業이 正常的인 循環關係와 相互依存關係를 갖지 못하며, 工業部門의 有効需要를 減少시키어 결국 工業發展까지 一定의 限界를 設定함으로써 國民經濟 전체의 發展을 沮止한다.

셋째, 國民經濟의 二重構造下에서 食糧供給을 海外로부터의 導入에 依存하는 것은 工業原料用農產物の 對外依存까지도 隨半하여, 國內工業 마저도 國內農業이 아니라 外國農業과 聯關關係·循環關係·分業關係를 맺게 되고 工業의 對外依存을 結果하여 制限된 工業發展의 聯關効果도 海外로 漏出되며 經濟發展을 沮害할 뿐 아니라 國民經濟의 構造를 매우 脆弱한 것으로 만든다.

넷째, 不足食糧을 海外에서 導入하여 供給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慢性的 外換不足狀態에 있는 開發途上國의 國民經濟로 하여금 貴重한 外換을 出血支出케 하여 經濟發展을 沮害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해마다 2億 5,000萬弗 以上の 外換을 海外로부터의 食糧導入을 위하여 支出하고 있는 바 이것은 우리나라의 經濟規模, 國際收支, 外換保有高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로 過重한 負擔이다. 이러한 負擔이 過去에 累積되어 왔고 또 앞으로 累積된다고 한다면 經濟發展은 이 負擔의 過重에 의하여 크게 沮止될 것이다.

다섯째, 國民經濟의 二重構造下에서 食糧供給을 海外로부터의 導入에 依存하는 것은 農業生産과 農業所得을 停滯케 하여 製造工業製品에 대한 農民의 實質購買力을 缺乏되게

함으로써 經濟發展을 크게 沮害한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工業製品에 대한 需要는 都市中高所得層의 需要와 輸出需要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都市中高所得層의 需要는 規模가 작고, 奢侈性 耐久財 또는 消費財에 대한 需要가 中心이 되어 工業構造의 類型을 不健全하게 만들며, 輸出需要는 不安定할 뿐만 아니라 交易條件이 不利하여 限界와 危險度가 따르고 있다. 工業化初期에는 生産不足이 현저하므로 이러한 制約된 需要에 依存하고서도 工業化가 시작될 수 있으나 工業化가 이 最初의 段階를 지나면 이 制約된 規模의 市場은 즉각 飽和狀態가 된다. 이에 따라 總體的으로 그리고 長期的으로는 生産施設의 不足이 支配하면서도 部分的으로 그리고 短期的으로는 需要의 不足이 作用하여 다같이 經濟發展을 沮害하는 要因을 形成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問題를 解決하는 方法이 農業所得을 增大시키고 農業開發을 推進해서 農業部門이 工業製品에 대한 需要部門이 되도록 改編하여 內包的 工業化를 推進하는 方法이다. 즉 農業生産部門은 重化學工業 및 機械器具工業에 대한 需要를 形成하고 農家消費部分은 輕工業製品에 대한 需要를 形成하여 農業과 工業사이의 正常的인 相互依存關係·分業關係·循環關係를 수립하는 것이다. 兩部門 사이에 이러한 循環關係가 수립되면 農業開發이 工業發展을 誘發하고 다시 工業發展이 農業發展을 誘發하여 循環的, 累積的 上昇過程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內包的 工業化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農業開發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農村의 貧困과 農業所得의 低水準은 農業部門이 工業製品에 대한 需要市場의 役割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制約하여 왔으며, 이것이 經濟發展의 가장 큰 沮害要因의 하나로 作用하고 있다. 農業部門이 需要市場의 役割에서 疎外됨으로써 工業部門은 이미 短期的으로 그리고 部分的으로는 需要市場의 不足에 直面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農業部門과 農民이 正當히 所得의 均等分配를 받을 수 있도록 價格政策과 所得政策을 樹立하고, 每年 海外로부터의 食糧導入에 支出하는 2億 5,000萬弗 以上の 資本을 食糧自給化를 위하여 國內의 食糧增產에 投資한다면, 이것은 國內의 食糧生産을 自給化水準에 到達하여 그것을 維持하도록 增加시킬 뿐만 아니라, 工業部門에 대해서는 즉각 農業部門에서의 實質購買力 또는 有効需要를 形成하여 工業成長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寄與를 할 것이며, 經濟發展에 대하여 乘數的 效果를 낼 것이다.

여섯째, 不足食糧을 海外에서 導入하는 것은 그것을 國內에서 增產供給하는 것보다 社會的 不安을 造成하기 쉽다. 아무리 配給機構나 流通機構를 整備한다 할지라도 不足食糧을 海外에서 導入하는 것은 國內에서 供給할 때의 「自動調整機能」을 喪失하여 斷續적으로 「인플레이션」을 誘發하기 쉬우며, 心理的, 社會的 不安을 造成하기 쉽다. 食糧需給計劃上으

로는 充分히 均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食糧의 海外導入時에는 간헐적으로 穀價急騰이 일어나는 것은 주로 이 때문이며, 또 印度에서의 例와 같이 外國으로부터의 導入食糧이 埠頭倉庫에 滯貨되어 있으면서도 各地方에서 食糧暴動이 일어나는 것은 國內에서 自給할 경우의 自動調整機能이 마비된 위에 社會的, 心理的 不安이 廣範圍하게 造成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일곱째, 不足食糧을 國內에서 自給하지 않고 海外에서 導入하여 食糧供給을 外國에 依存하는 것은 國民經濟의 自立도를 低下시키고 自立經濟體制의 最下層基盤을 교란하여 國民經濟의 構造를 脆弱하게 만들고 外國에의 政治的, 經濟的 從屬을 가져오기 쉽다. 특히 食糧은 國民의 生命維持와 活動의 에너지를 供給하는 가장 緊要하고 基礎的인 部門이기 때문에 이것을 外國에 依存하는 것은 外國의 政治的 干涉를 받기 쉬우며 결국 國民經濟의 發展을 沮止당하기 쉽다. 예컨대 食糧供給을 外國에 依存하고 있는 나라가 어떠한 事情으로 갑자기 外國으로부터의 食糧供給을 斷切당하였다고 假定할 경우, 그 國民經濟는 다른 部門이 아무리 確固하게 發展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루 아침에 倒産해버리고 말 것이며 이것은 다른 部門의 不足을 外國에 依存하는 것과는 比較도 안되리만치 그 慘狀은 苛酷할 것이다. 그러므로 國民經濟의 長期的 發展을 保障하고 經濟開發計劃의 目標을 確固히 達成하려면 그에 따르는 食糧의 自給化體制가 樹立되어야 할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상의 일곱가지 이유로 우리는 國內生産에 의한 食糧自給化體制의 確立을 強力히 主張하는 바이다.

國內의 食糧生産의 增加를 통하여 食糧自給化를 達成하려면 그 自給化의 政策은 크게 나누어 生産技術的 要因, 經濟的 要因, 社會學的 要因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生産技術面에서 주어진 技術水準下에서도 이미 自給化를 達成・維持할 수 있는 可能性이 充分히 있는 이상 政策問題의 초점은 經濟的, 社會的 要因에 주어진다. 이 중에서 社會學的 要因은 經濟的 要因이 주어져 해결되었을 때의 相互補完的인 效率性의 提高에 더 깊이 關聯되어 있으므로 문제는 經濟的 要因이 先決되어 해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經濟的 次元에서 食糧自給化를 위한 增産政策을 논의할 경우에는 과거의 農業停滯의 基本的 要因이 低農産物價格政策에 가장 크게 關連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응하여 자연히 價格政策을 수정하여 農民에게 增産을 위한 經濟的 誘引(incentive)를 제공하고 農業經營費를 調達할 수 있도록 農業所得의 增大를 가능케 하며, 增産을 위한 대대적 資本投下가 進展되도록 資本調達方案을 해결해 주는데 있다. 즉 農産物 價格政策과 農業金融政策에 문제의 핵심

이 集約되어 있다. 이 문제의 해결 위에서 비로소 生産增加를 위한 新技術도 導入되어 農民에게 적극적으로 受容될 수 있고 社會學的 諸要因의 改革도 적극적으로 實現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食糧自給化를 위한 價格政策의 改革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III. 食糧自給化를 위한 價格政策

1. 低農產物價格政策論批判

食糧自給化를 위한 價格政策을 논의하기 위하여 먼저 지금까지 農業生産을 停滯시켜 온 主因의 하나인 低農產物價格政策과 그 理論的 背景에 대하여 批判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價格政策轉換의 기초작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첫째로 검토되어야 할 低農產物價格政策論은 「生計農業說」로서 生計農業은 生計가 目的이고 利潤이 目的이 아니기 때문에 高農產物價格이 生産增加를 誘發하지 못한다는 理論이다.

이 理論에 의하면 우리가 다루는 經濟學은 標準理論(standard theory)으로서 資本主義를 說明하는 理論이요, 農業部門에 대해서도 그것은 企業的, 資本主義的 農業을 說明하는 理論이지 生計農業(subsistence agriculture)을 說明하는 理論은 아니라고 본다. 이 理論에 의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開發途上國의 農業은 非資本主義 傳統的 農業(traditional agriculture or sector)으로서 그 獨自의 原理를 發見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發見한 原理가 이른바 「生計農業說」로서 傳統的 農業은 生計가 目的이고 利潤이 目的이 아니기 때문에 生産物은 대부분 自家消費에 充當하여 버려 商品化率은 低位이며 利潤의 成立에는 關心이 없고 家族勞動報酬에 滿足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農業에 대하여 高農產物價格政策을 主張하는 것은 資本主義經濟理論을 非資本主義經濟에 適用하는 愚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理論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두가지 사실을 混同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먼저 이 理論은 生産過程과 流通過程을 區分하여 보지도 못하고 流通過程의 資本主義的 原理가 生産過程에 部分的으로 이미 侵透해 들어가서 資本主義의 原理가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生産方式이 技術的으로 아무리 傳統的方式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流通過程의 貨幣·利潤概念이 이미 生産過程 속에 浸透하여 生産이 傳統의 技術을 가지고서도 利潤의 增加나 價格의 上昇에 同方向으로 反應한다는 사실을 이 理論은 看過

하고 있다.

다음 이 理論은 結果와 動機를 混同하고 있다. 즉 零細經營의 結果로서의 低商品比率(高自家消費率)과 家族員의 收益增大와 生活水準의 向上을 희구하는 農民의 動機를 混同하여 結果가 低商品化率로 나타나는 것은 마치 動機도 非資本主義的인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理論의 不當性은 극히 實證的으로 證明될 수 있다. 단일 이러한 生計農業說이 事實과 一致한 것이라면 價格變動에 대한 生産彈性値가 0이거나 또는 그에 극히 接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計測된 바에 의하면 生計農業說의 主張者들이 事例로서 들고 있는 印度의 경우에도 地域에 따라 偏差가 있지만 모두 0 以上으로 나오며 대부분이 0.1~0.4 사이에 分布된다는 事實이 證明되고 있다.⁽³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의 計測에 의하면 米穀의 價格의 生産彈性値는 약 0.29이며 大麥의 生産彈性値는 약 1.8이다.⁽³¹⁾ 이것은 價格을 10% 上昇시켜 주면 다른 條件을 變化시키지 않아도 農民의 自發的反應에 의하여 米穀은 2.9%, 大麥은 18%의 生産增加가 나타난다는 事實을 말해 주는 것이다.

價格變動에 대한 生産彈性値가 「플러스」로 높게 計測되어 나온다는 事實은 소위 「生計農業說」의 非事實性을 잘 證明해 주며, 이것은 또한 價格政策을 高價格으로 轉換시켜야 食糧自給化를 위한 生産增加가 可能하다는 事實을 잘 말해주고 있다.

둘째로 논의되어야 할 理論은 소위 費用價格保障論 또는 生産費論이다.

이 理論에 의하면 小農은 家族勞動에 의존하고 雇傭勞動에 依存하지 않기 때문에 農產

(30) Raj Krishna의 計測에 의하면, 印度의 경우에 있어서도, 地域에 따라 差異는 있지만, 價格에 대한 農產物의 生産彈性性은 「플러스」이고 그 값은 低反應의 경우 0~0.1, 中反應의 경우 0.1~0.4, 高反應의 경우가 0.4~0.7로서 대체로 中反應의 경우가 主作物의 경우임을 報告하고 있다.

印度의 農產物의 生産彈性性			
例.	0~0.1	0.1~0.4	0.4~0.7
米穀		米穀	綿花
小麥		小麥	जूट
옥수수		옥수수	
大麥		사탕수수	
雜穀			
고무			

Raj Krishna, "Agricultural Price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Herman M. Southworth and Bruce E. Johnston (ed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Gerald M. Meier, *Leading Issues in Economic Development*, (seco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pp.426~429, 參照.

(3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조사월보』, 1968년, 11월호.

物價格이 費用價格(cost price)에서 決定되며, 따라서 企業的, 資本主義的 農業과는 달리 小農에 대해서는 利潤이 아니라 費用價格((C+V) 또는 生産費만 보장해 주면 된다는 見解이다.

이 理論은 獨占支配下의 小農의 脆弱點을 法則的으로 說明하는 論理에 불과한데 어느듯 政策論으로 惡用되는 理論이다.

論理的 法則만 말한다면 獨占下에서의 小農은 「費用價格」 또는 「生産費」가 保障되지 않아도 生産은 持續한다. 즉 農工間의 正常的인 等價交換이 이루어진다면 農產物價格은 工產物價格과 마찬가지로 生産價格(production price)에서 결정될 것이다. 즉

$$P=C+V+M$$

C=固定資本費用 또는 不變資本費用
V=流動資本費用 또는 可變資本費用
M=利潤

이다. 그러나 自由放任下에서 이 生産價格이 維持될 수 있으려면 다음의 條件이 만족되어야 한다.

즉 利潤 M가 保障되지 않으면 農業者가 農業에 投資된 資本을 非農業部門에 自由로이 移動하여 利潤이 保障되는 새로운 業種에 投資하여 M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經濟가 發展하여 企業이 大規模化되고 또 獨占이 形成되어 있는 경우에는 小農이 小土地와 農機具 등 生産手段을 販賣하여 都市에 移動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零細 資本으로 M을 保障받도록 投資할 機會는 어느 곳에서도 存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農產物價格이 利潤 M을 保障해 주지 않고 費用價格(C+V)만을 保障해 주어도 小農은 農村에 남아서 生産을 그대로 持續한다.

따라서 이러한 條件下에서는 農產物價格은

$$P=C+V$$

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自由放任下에서 이 價格이 維持되려면 다음의 條件이 만족되어야 한다.

즉 賃金 또는 勞動報酬 V가 完全히 保障되지 않는 경우에는 農業經營을 포기하고 都市에 自由로이 移動하여 產業勞動者로 就業해서 完全한 V를 획득할 수 있도록 雇傭機會가 주어져야 한다. 만일 工業部門이 充分히 發展하지 못하여 이 勞動의 自由로운 移動을 吸收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農民은 農產物價格이 費用價格以下로 低落할지라도 農村에 그대로 남아서 農業經營을 그대로 持續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農產物價格은,

$$P=C+V/n$$

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여기서 거듭 강조하여 지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이것은 小農이 獨占下에서 어떠한 交易條件의 不利性, 市場價格決定의 構造的 不利性을 갖고 있는가를 說明하는 論理이지 「政策價格」을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와 반대로 이것은 獨占下에서 小農이 政策的 保護가 없이는 市場價格形成에 있어서 이러한 不利點을 갖고 있으므로 獨占의 橫暴를 막고 小農으로 하여금 $P=C+V+M$ 의 生産價格을 획득하여 工産物과 等價交換을 할 수 있도록 對策을 要請하는 理論인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農産物價格에 있어서 費用價格以下($P=C+V/n$)는 縮少再生産을 結果하는 價格이며, 費用價格($P=C+V$)은 單純再生産을 結果하는 價格이고, 生産價格($P=C+V+M$)은 擴大再生産을 結果하는 價格이다. 종래 未熟한 小農論者들이 農産物價格政策의 目標를 마치 價格水準을 生産費保障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착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生産費保障만으로는 單純再生産이 持續될 뿐이며 農業生産은 停滯되고 만다. 만일 農産物價格을 生産費 또는 費用價格保障水準에서 決定되게 하고 그 위에 增産을 위한 諸措置를 強行하던 增産을 위한 投資部分은 負債가 되어 農民은 負債農으로 轉落하고 增産의 効果는 곧 消滅되어 다시 單純再生産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小農의 경우에도 擴大再生産, 즉 食糧自給化를 위한 增産을 實現하려면 반드시 生産價格 즉 利潤을 政策的으로 保障시켜주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로 批判하여야 할 理論은, 小農經濟에 있어서의 生産物 供給의 後方傾斜曲線(backward sloping supply curve)의 存在를 假定하고, 價格(및 所得)의 上昇과 生産物 供給量(市場出荷量) 사이에 逆相關關係가 있다는 見解이다. 이 理論에 의하면 小農은 「一定의」 貨幣需要量 또는 必要量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農産物價格을 높여 農業所得이 增大되면 小量의 販賣로도 一定의 貨幣需要量을 獲得할 수 있으므로 도리어 食糧의 市場에의 出荷量을 減少시키고 自家消費量을 增大시키며, 도리어 農産物價格을 低下시켜야 一定의 貨幣必要量을 獲得하기 위하여 市場에의 出荷量(供給量)을 增大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理論은 전혀 그릇된 두가지 假定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첫째는 農民의 食糧需要의 所得彈性值가 1 또는 1 보다 커서 所得增加만큼의 食糧을 전부 自家消費의 增加로 消費할 것이라는 假定이다. 그러나 실체는 어느 나라나 食糧의 品目에 따라 다르지만 主食에 있어서는 農民의 食糧需要의 所得彈性은 1보다 적고 作物에 따라 대체로 0.5 以下이다. 1968년에 計測된 우리나라 農民의 米穀需要의 所得彈性은 약 0.5이었고, 보리쌀의 그것은 약 -0.7이었다. 이 사실은 그들의 假定과는 反對

로 農產物價格이 增大하여 所得이 따라서 增大되면 그에 正比例하지는 않지만 同一方向으로 市場에의 出荷量도 增加한다는 사실을 잘 證明해 주는 것이다.

둘째는 農民의 貨幣需要量이 小額이며 一定하다는 假定이다. 그러나 이 假定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도리어 農民은 실제로 全生産物을 모두 販賣하여도 不足할 만큼 貨幣飢饉狀態에 있고, 또한 擴大再生産과 家事의 費用으로 可能한 한 貨幣를 많이 獲得하려고 하므로 農民의 貨幣需要量은 결코 少額이거나, 一定하거나, 固定不變한 것이 아니라 價格과 所得增大에 따라 그에 同方向으로 더욱 增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그릇된 假定에 기초한 그러한 理論은 거짓이며, 農民의 後方傾斜供給曲線의 存在를 主張하는 것은 전혀 荒唐무계한 것이다.

실제로 計測된 우리나라의 價格變動에 대한 米穀의 供給彈力性値는 生産彈力性値의 2배가 되어 「플러스」 0.6에 달하고 있는 바, 이것은 農產物 價格上昇과 食糧의 市場에의 供給量의 增加가 同一方向으로 運動함을 증명해 줌과 동시에 그 供給量의 增加率이 生産量 增加의 2배나 되어 매우 높다는 事實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食糧의 生産增加 뿐만 아니라 그 보다 높은 比率의 市場에의 供給量(出荷量)의 增加를 위해서도 低農產物價格이 아니라 高農產物價格政策을 採擇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批判하여야 할 理論은 農產物의 價格上昇이 生産物의 供給量을 增大시키는 것은 代替效果가 所得效果보다 클 때만이 가능한데 開發途上國의 農民에게는 農產物(특히 米穀) 需要의 所得彈力性이 1에 가깝게 매우 커서 所得效果가 代替效果를 壓到하므로 農產物價格이 上昇하면 出荷量이 減少하고 오히려 農產物價格이 低落할 때 出荷量이 增加하므로 低農產物價格政策이 食糧供給에 有効하다는 主張이다.

즉, 이 理論에 의하면, 農家は 그 生産物의 많은 部分을 自家消費하고 나머지만을 商品化하여 非農業部門에 供給하는 것이므로 生産量增加가 곧 供給量增加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農家が 商品化하는 供給量이 그 農產物 價格의 變動에 어떻게 反應하는가를 나타내는 價格效果는 所得效果와 代替效果의 合成이다. 農產物價格이 上昇하면 農家は 價格上昇으로 그의 農業所得이 增大되기 때문에 그 生産物이 下級財가 아니라면 그에 대한 需要를 增加시키고 따라서 供給量은 減少한다. 한편 農產物 價格이 上昇하면 그 生産物의 消費를 줄이고 다른 生産物의 消費로 代替하려는 代替效果가 생겨서 自家消費量을 줄이고 供給量을 增加시킨다. 이러한 農家の 行動은 相對적으로 價格이 높은 財貨를 더 低廉한 財

貨로 代替하려고 하는 消費者의 行動과 同一하다. 그러므로 農產物價格을 上昇시키면 農產物의 非農業部門으로의 供給量은 正의 所得效果에 의하여 減少하고 代替效果에 의하여 增加한다. 따라서 이 相異한 方向으로 運動하는 두가지 效果中에서 어느 것이 支配的인가에 따라서 農產物供給量은 減少하거나 增加한다.

그들의 理論에 의하면 開發途上國의 農民들에게는 農產物 특히 米穀에 대한 所得效果는 正이고 相對적으로 크기 때문에 所得效果는 代替效果를 壓倒하여 農產物價格이 上昇할 때에 米穀의 供給量은 도리어 減少하게 된다. 반대로 價格이 下落하면 米穀의 供給은 오히려 增加한다. 따라서 그러한 農產物의 供給曲線은 負의 기울기를 가지게 된다. 先進國에 있어서처럼 所得效果가 負가 되거나 또는 所得效果가 正이더라도 그 絕對值가 작아서 代替效果에 의하여 壓倒되는 경우에만 그 供給曲線은 正의 正常的인 기울기를 가질 것이라고 한다. 주로 糧穀을 生産하는 零細農家は 자기의 生産量의 약 50%를 租稅・子女教育費・負債償還・必需品購買 등을 위하여 商品化하고 그 나머지를 自家消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自家의 生存에 必要한 食糧은 언제나 不足한 狀態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農家の 自家生産食糧에 대한 需要의 所得彈力性은 거의 1 과 같고 어떤 경우에는 1보다 크다. 이와 같은 상태하에서는 農產物價格이 上昇하고 所得이 增加하면 所得效果가 代替效果를 壓倒하기 때문에 自家消費量은 增加하고 供給量은 減少하게 된다. 따라서 農產物價格이 變動하더라도 食糧供給量은 價格變動과 同一한 方向으로 變動하지 않는다. 즉 農產物價格이 上昇하면 食糧供給量이 減少하므로 農產物價格은 오히려 上昇하고, 農產物價格이 下落하면 農家は 自家消費를 줄이고 食糧供給量을 增加시키므로 價格은 도리어 더욱 下落한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에서는 非農業部門으로의 食糧供給을 增大시키기 위해서는 低農產物價格政策이 有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理論은 몇가지 非現實의 假定 위에서만 定立될 수 있는 것이다.

즉, ① 農家の 主食糧需要의 所得彈力性이 1 이거나 1以上인 경우 등이다.

② 效果的 代替食糧이 전혀 存在하지 않는 경우,

③ 價格變動에 대한 供給彈力性이 生産彈力性보다 작을 경우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開發途上國도 거의 대부분 그러하지만, 위의 假定은 어느 경우이나 모두 맞지 않는다.

즉, ① 農家の 米穀需要의 所得彈力性은 1968年의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의 計測에 의하면, 0.5이고 보리쌀의 그것은 -0.7 이다. 따라서 價格 또는 所得增加에 比例하여 食糧의 自家消費를 增加시키지 않는다. 특히 보리쌀의 경우에는 그 逆이 眞이다.

② 効果적인 代替食糧이 存在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米穀과 보리쌀의 代替關係이다. 역시 1968 年에 計測된 보리쌀의 米穀에 대한 交叉彈力性은 0.3 으로서 米穀價格이 10% 上昇하면 農家の 自家消費 중에서 3%를 보리쌀로 代替하고 그 만큼의 米穀을 市場에 出荷시킴을 의미하는 것이다. 米穀에 대한 代替品目은 米穀 뿐만 아니라 多數의 品目이 存在하므로 代替效果의 總량은 所得效果의 總량보다 큰 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農產物價格이 上昇하면 市場에의 食糧供給은 增加한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價格變動에 대한 米穀의 生産彈力性은 약 0.29 이고 그 供給彈力性은 약 0.6 임이 計測되었다. 따라서 農產物價格이 10% 上昇하면 生産은 3% 增加한다고 볼 수 있지만 供給은 農家の 自家消費의 여러가지 他品目으로의 代替效果로 말미암아 6%나 增加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農產物價格이 上昇하면 農產物需要의 所得彈力性이 正의 값을 가졌기 때문에 正比例하여 供給量이 增加하지는 않지만 높은 比率로 同一方向으로 運動한다는 엄연한 事實을 明白히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理論과는 달리 食糧의 供給量을 增大시키기 위해서도 高農產物價格政策을 施行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로 批判하여야 할 理論은 工業部門의 급속한 資本蓄積과 工業化를 위해서는 低農產物價格政策은 不可避하다는 見解이다.

즉, 이 理論에 의하면 급속한 工業化 또는 經濟發展을 위해서는 급속한 資本蓄積이 필요한데 이는 利潤의 蓄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높은 利潤蓄積을 위해서는 生産費를 切下시키기 위한 賃金率의 下落이 有効하며 이것은 賃金財인 農產物價格의 下落에 의하여 實現되는 것이기 때문에 低農產物價格政策이 不可避하게 必要하다는 것이다. 특히 輸出을 위해서는 商品의 國際競爭力이 強化되어야 하는데, 開發途上國에서는 ① 規模의 經濟의 不利 ② 技術水準의 低位 ③ 資本 및 勞動의 附加價值生産性의 不利 등으로 말미암아 商品單位當 生産費가 先進國보다 높게 되기 때문에 開發途上國에서 生産費를 切下시킬 수 있는 確實하고 가장 安全한 方法은 低農產物價格政策을 實施하여 賃金率을 低下시키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의 近視眼的 誤謬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見解가 기초하고 있는 두가지 그릇된 假定만을 지적하고 그치려고 한다.

첫째, 이러한 見解는 有効需要가 無制限 存在하여 投資에 의하여 生産된 것은 모두 販賣될 수 있다는 古典學派의 販路法則을 假定하고 있다. 이러한 假定은 農村이나 都市勤勞

者層에 有效需要 또는 實質購買力이 形成되지 않아도, 對外的으로 植民地나 新市場이 계속 追加되어 生産한 것은 모두 輸出·販賣될 수 있던 初期資本主義時代의 假定이다.

오늘날의 開發途上國에서는 이러한 外部的 條件은 전혀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假定도 그릇된 幻想에 불과하다. 도리어 오늘날의 開發途上國은 生産面에서 資本을 蓄積하여 投資를 增大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需要面에서 生産增大에 對應하는 有效需要의 增大를 實現시켜주는 兩面的 同時的 措置가 必要하므로 高農產物價格政策을 통하여 農村에 있어서의 實質購買力의 形成과 農業과 工業의 循環關係를 원활히 수립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見解는 工業의 利潤蓄積만이 資本形成이라는 그릇된 假定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假定은 金融制度의 機能이 發展되지 않았던 時代에는 存在하였던 見解이다.

그러나 오늘날 開發途上國에서는 農業部門에 있어서도 金融組織을 통하여 貯蓄에 의한 資本形成을 할 수 있으므로 高農產物價格政策을 採擇하여 農業所得을 增大시키고 그 農業所得의 一部가 貯蓄될 수 있도록 制度化하여 그것을 生産不足이 基本문제일 때는 資本形成에 寄與케 하고 有效需要의 不足이 긴급한 문제일 때는 購買力이 되도록 하여 資本形成과 不況對策에 二重的으로 寄與할 수 있도록 農產物價格政策과 農業所得政策을 轉換할 필요가 절실한 것이다.

食糧自給化를 위하여 현재의 與件 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價格政策으로는 다음의 세가지 政策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첫째는 高農產物價格政策이고, 그 둘째는 二重價格制度이며, 그 셋째는 高農產物價格政策과 二重價格制度를 綜合하는 方法이다.

2. 高農產物價格政策

高農產物價格政策은 米穀·麥穀·豆類·薯類·雜穀·菜蔬 등 모든 農產物에 대하여 製造業部門에서와 같이 「平均利潤」 또는 「收益率」을 保障하여 주는 政策이다.

이 政策을 實施하면 再論할 필요도 없이 食糧生産의 增加를 誘發한다. 例컨대,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의 計測에 의하면 米穀의 生産彈力性値는 0.29 이고 供給彈力性値는 그 약 2. 배이므로 米價를 10% 上昇시켜 주면 農民의 自發的 反應에 의하여 生産은 2.9% 增加하고 非農業部門으로의 供給은 6% 增加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大麥의 生産彈力性値는 플러스 1.80 이므로 麥價를 10% 上昇시켜주면 다른 條件이 變化하지 않아도 農民의 自發的 反應에 의하여 大麥生産이 18% 增加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農產物價格을 30% 上昇시켰다고 假定하면 米穀生産은 8.7% 增加하고 그 供給量은 18% 增加할 것이며, 大麥生産은 54% 增加할 것임을 豫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計測은 사실과 完全

히 一致할 수는 없지만 그 대체적인 反應度는 이 數値의 上下에 接近하리라는 것은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農民의 反應度는 따로이 食糧增產計劃이나 또는 政府의 技術的 獎勵나 支援이 없을 때의 增產效果인 것이다. 만일 政府가 生産技術面에서나 金融面에서 積極的 支援을 實施할 경우 이 增產效果는 더욱 增加할 것임은 自명한 일이다. 이 간단한 計測에서도 高農產物價格政策이 食糧自給化를 위한 매우 効率的인 政策임을 確認할 수 있다.

高農產物價格政策을 實施하는 機構는 여러가지가 考案되어 있고 나라마다 다른 方法을 使用하고 있으나 가장 現實的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効率的 方法은 政府買上制度이다. 이 方法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採擇하여 施行하고 있으므로 說明을 요하지 않는다.

政府買上制度를 통하여 高農產物價格政策을 實施할 경우 문제점이 되는 것이 高價格水準을 어떠한 基準으로 어떠한 水準에서 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價格水準이 決定되면 그에 따라 政府가 買上하여야 할 買上量과 買上資金의 크기가 決定될 것이다.

여기서는 가장 문제점이 되는 價格水準의 決定問題에 論及하려고 한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買上量과 買上資金의 크기는 平年の 收穫量에 따라 自動的으로 計算되는 것이다.

食糧의 價格水準을 決定하는 方法은 종래 패리티價格(價格 및 所得패리티), 家計費米價, 率勢米價, 生産費米價 등이 제시되어 왔다. 이 중에서 家計費米價는 消費者家計의 負擔限度를 나타내는 價格이므로 直接的으로 生産者價格을 논의하는 資料나 基準으로 使用할 수 없다. 또한 率勢米價는 米價指數가 一般物價指數보다 低水準일 때에는 米價를 一般物價指數의 水準까지 引上시키고 米價指數가 一般物價指數 보다 高水準일 때는 米價를 一般物價指數와 同水準까지 引下시키어 米價水準과 一般物價水準을 均等하게 保障하려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패리티價格과 같은 범주의 것이다. 따라서 高農產物價格政策의 價格水準을 決定하는 基準은 대체로 패리티價格을 使用할 것인가, 生産費基準을 使用할 것인가, 또는 兩者를 組合시킨 第3의 方案을 考案할 것인가 등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가지 可能性中에서 生産費方式의 價格水準決定基準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合當하다고 생각한다.

패리티價格은, 率勢米價를 포함해서, 美國, 佛蘭西, 日本 등 各國에서 광범위하게 變容시켜 使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使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첫째, 패리티價格자체가 生産價格(生産費+利潤)을 保障하는 價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때로는 生産價格을 保障해 줄 수도 있으나 때로는 生産費以下로 될 수도 있다. 패

패리티價格은 農家の 工業物購入價格指數와 農家の 農產物販賣價格指數를 比較하여 前者 즉 農家支拂價格指數(index of prices paid by farmers)와 農家受取價格指數(index of prices received by farmers)의 比率이 基準年度에 비추어 1이 되도록 均等하게 하는데 不過하므로 그것이 生産價格을 保障해 줄 수 있는 確固한 理論的, 現實的 根據은 없다.

둘째, 패리티價格은 工業生産과 農業生産이 기본적으로 同質的 生産構造를 가지고 있을 때 그 完全한 機能이 발휘될 수 있는 政策價格이다. 工業部門에서는 資本主義的, 現代的 經營이 이루어지고 農業部門에서는 前資本主義的, 傳統的 生産樣式이 殘存하고 있는 二重構造下에서는 工業部門에서는 상대적으로 급속한 技術革新과 經營改善이 進展되어 生産費가 切下되고 市場獨占에 의하여 막대한 獨占利潤까지도 획득할 수 있는 반면에 農業部門에서는 技術革新과 經營改善이 상대적으로 완만하여 生産費切下가 느리고 競爭價格의 保障도 어려우므로 설령 基準年度에 비추어 農家支拂價格指數와 農家受取價格指數를 均等化시켰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工業生産者가 훨씬 有利하게 되며 農工間의 購買力의 均等이나 所得의 均等分配는 이를 수 없는 것이다.

셋째, 패리티價格은, 價格패리티이든지 또는 所得패리티이든지, 기본적으로 食糧生産問題가 해결된 후의 供給調整 또는 所得分配문제와 관련하여 대두된 政策價格이지 직접적으로 食糧增産을 위하여 등장한 政策價格이 아니라는 事實이다. 그것은 所得과 購買力問題를 통하여 間接적으로 食糧增産을 支援해 줄 수 있는 政策價格이다. 따라서 아직도 食糧增産이 기본문제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政策價格으로서 生産費積上計算方式에 의한 生産價格保障政策이 더욱 正確하고 効率的인 政策인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過去에 農家支拂價格과 農家受取價格 또는 農工間의 購買力과 所得이 均等한 時點을 發見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基準年度의 選擇이 지극히 困難하다. 패리티價格에서는 基準年度의 農家支拂價格과 農家受取價格의 均衡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大前提인데 이 大前提의 妥當性을 保障할 수 없으면 패리티 價格은 無意味한 것이다.

다섯째, 패리티價格은 基準年度의 農家購入品の 支拂價格과 受取價格을 指數化하여 그 均衡의 如何를 比較하는 것인데 短期的으로 볼 때는 현재의 農家生活水準의 低水準으로 말미암아 農家購入品の 品目の 數가 적고 價格의 低廉한 것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패리티價格이 農家에게 不利하게 算出되며 또한 長期的으로 볼 때는 農家受取價格指數에 있어서도 農家販賣品目の 種類와 經濟的 比重이 變化하며 農家支拂價格指數에 있어서도 購入品目の 種類와 經濟的 比重이 變化하여 農工間의 實質購買力의 均等を 獲得하여 維持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食糧自給化를 위한 高農產物價格政策의 價格水準 決定의 基準은 生産費積上計算方式에 의한 生産價格의 算出이 보다 合理的인 기준이 된다. 단일 패리티價格과 生産價格의 兩者를 綜合하여 修正된 基準을 發見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生産價格基準을 價格으로 하여 綜合하는 것이 食糧增產에 直接的으로 보다 有效할 것이다.

生産價格을 價格決定의 基準으로 選擇하는 경우에는 生産費計算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理論的으로는 生産價格은 다음과 같이 構成된 것이다.

$$\text{農業生産價格} = \text{固定資本費用} + \text{流動資本費用} + \text{利潤} + \text{地代}$$

그러나 실제로 農業生産價格을 發見하기 위하여 農業生産費를 調査하는 경우에는 극히 實際的인 調査項目을 設定하고 있다. 現在 農林部가 調査하는 項目은 다음과 같다. (32)

- ① 種子費 ② 肥料投入費 ③ 水利費 ④ 防除費 ⑤ 農舍費 ⑥ 農具費 ⑦ 勞力費 ⑧ 畜力費 ⑨ 租稅公課 ⑩ 負擔金 ⑪ 材料費 ⑫ 資本用役費 ⑬ 土地用役費

이러한 調査方法中에서 再檢討 또는 修正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生産費計算의 現實化에 資料의 하나를 提供하려고 한다.

첫째는, 勞力費의 計算方法이다. 雇傭勞動의 경우에는 賃金이 실제로 支拂되므로 問題가 發生하지 않는다. 문제는 自家勞動의 경우 그 賃金을 어떻게 評價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農村의 雇傭勞動의 賃金을 適用할 것인가, 都市工業의 平均賃金水準을 適用할 것인가 하는 論爭點이 있다. 長期的으로는 勞動力도 높은 勞動報酬를 찾아 自由로이 移動하는 것이므로 長期政策으로서의 食糧自給化政策下에서는 당연히 都市工業部門의 平均賃金水準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理論的으로 兩部門의 均等成長을 위해서도 그러할 뿐 아니라 相對的으로 낮은 農村賃金率을 적용할 경우 長期的으로 農村의 質 좋은 勞動力이 非農業部門 특히 第3次産業에 非生産的으로 就業하여 農業勞動力을 弱化시킴으로써 食糧自給化 達成에 阻害的 要因을 造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無市價投入要素의 評價問題이다. 예컨대 堆肥, 厩肥, 綠肥, 草木灰, 生糞 등과 같이 市場價格이 形成되어 있지 않은 農家の 自給投入物은 農業生産費의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므로 이것을 價格으로 換算하여 計算해 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이들 無市價投入物의 生産에 必要한 生産費를 다시 算出하여 農業生産費計算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無市價投入物의 品目別 單位當 生産費를 算出하여 그것을 一般化하여도 地域別 또는 經營規模別 隔差가 별로 發生하지 않으므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32) 농림부, 『1971년도 농가경제조사 및 농산물 생산비조사 결과보고』

셋째는, 地代의 評價問題이다. 自作小農에 있어서는 地代를 生産費에 포함시키는 것은 虛構의 計算이라는 강력한 反對가 있으나, 사실은 地代가 生産費에 計算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自作農은 土地購入에 대하여 一定한 貨幣資本을 支拂한 狀態에 있기 때문에 地價部分에 대한 用役費를 報償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土地購入資金을 銀行에 預置하였을 경우의 利子部分을 計算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自作農에 있어서의 土地購入費란 것은 地代의 無限年分의 先拂로 볼 수 있고, 地價는 每年 그 土地에 대하여 支拂되는 地代를 現在價格으로 割引한 것의 合計이며, 地代는 地價에 利子率을 乘한 土地資本利子라고 解釋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自作農의 경우 生産費에 포함될 地代의 計算은 地價에 대한 銀行利子率을 計算하여 주면 된다.

넷째는, 資本用役費의 評價問題이다. 즉 農業經營에 支拂된 土地以外的 固定資本과 流動資本에 대하여 利子部分을 計算하여 주는 문제이다. 이것은 農家가 經營費를 借入하여 실제로 利子を 支拂하였을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自己資本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 自己資本을 銀行에 預置하였을 경우 利子を 支拂받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그 利子が 生産費에 포함되어 計算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製造業部門에서 自己資本에 대한 利子を 生産費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는, 平均利潤의 計算問題이다. 현재 農林部에서는 生産費에 이 項目을 附加시키지 않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增産을 誘引할 수 없다. 이미 앞에서 누차 論議하여 온 바와 같이 農業에 있어도 그것이 小農일 경우일지라도 製造業部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平均利潤을 實現시켜 주어야 비로소 自發的 擴大再生産이 可能하고 食糧自給化政策을 實施할 수 있는 것이다. 農業生産費에 加算하여 生産價格을 形成할 平均利潤의 計算方法은 製造業部門의 平均利潤率을 算出하여 그것을 그대로 農業에도 適用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왜냐하면 農業과 工業의 平均利潤率이 均等할 때 資本의 한 部門으로부터 다른 한 部門으로의 一方的 흐름을 抑制하고 投資의 自由로운 選擇을 可能하게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論議하여야 할 문제는 農業에 있어서는 土地의 肥沃도와 位置에 따라 限界地(marginal land)에 있어서의 生産費와 平均地(average land)에 있어서의 生産費에 현격한 差異가 있는데 어떠한 것을 生産費計算의 基準으로 選擇하여야 하는가 하는 問題이다. 이에 대한 解答은 再論의 餘지없이 限界地에 있어서의 最高生産費 또는 限界生産費를 基準으로 채택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것은 두가지 理由때문에 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점이다.

첫째는, 食糧增産의 方法이 內充的, 垂直的 方法에 의하여서만 進展되는 것이 아니라 外延的, 平面的 方法 즉 開墾·干拓 등에 의한 新耕地의 追加에도 크게 依存하는 것이기 때문에 限界地에 있어서의 食糧生産費에 平均利潤이 附加되어야 비로소 經濟的으로 耕地의 外延的 擴大를 위한 投資가 施行될 條件이 갖추어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農業에 있어서는 自然災害가 存在하기 때문에 製造業部門보다 약간 높은 利潤率이 실현될 蓋然性이 前提되어야 실제에 있어서 均等한 利潤率이 實現되며 資本의 自由로운 移動이 可能하게 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가 限界地에 있어서의 「生産價格」을 實現시켜 주면 그 안에 있는 平均地에 있어서는 食糧의 平均의 生産價格을 超過하는 超過利潤이 發生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工業에는 없고 農業에만 特有的 自然災害(예컨대 洪水, 旱魃, 早霜, 寒冷, 우박 등등)의 存在 때문에 相殺되기 일수이며, 이 制約이 資本移動에 나타나는 이른바 「資本制限」(capital rationing)의 障礙를 克服하고 農業部門에 投資가 實現되도록 하는 經濟的 誘引(incentive)으로 作用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存在가 반드시 必要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벌크·라인」(bulk line)方式은 食糧自給化를 위해서는 전혀 效率性이 없는 方法이다. 구태어 이 概念을 使用하려면 「벌크·라인」이 100%를 維持하도록 하여야 食糧自給化를 實現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참조하여 限界地에 있어서의 平均生産價格을 計算하여 이것을 農産物價格水準으로 책정하면 이것이 合理的인 「適正價格」水準으로 되고, 여기에 政府가 원하는 增産의 速度 즉 食糧生産의 目標增加率에 따라 어느 정도의 經濟誘引으로서의 프레미엄을 附加시켜 줄 것인가를 결정하여 이를 合算하면 우리가 구하는 高農産物價格政策水準이 算出되어 나오는 것이다.

高農産物價格政策은 누차 지적하여 온 바와 같이 食糧自給化를 위한 效率的인 價格政策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政策을 制度化하기 위해서는 政府의 確固不動한 食糧自給化의 決意와 農民의 自衛力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政策은 賃金率을 약간 上昇시키어 相對的으로 利潤率을 약간 低下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작은 利益에도 매우 敏感한 獨占企業의 利己的 反對가 있을 수 있으며, 飲食費를 切下시키어 文化費를 增大시키고자 하는 都市消費者의 壓力이 存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政策擔當者의 確固한 決意와 農民의 自衛力이 없으면 실제는 겨우 生産費水準의 價格에 머물면서 名目만 高農産物價格政策이 되어 實効를 거두지 못할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3. 二重價格制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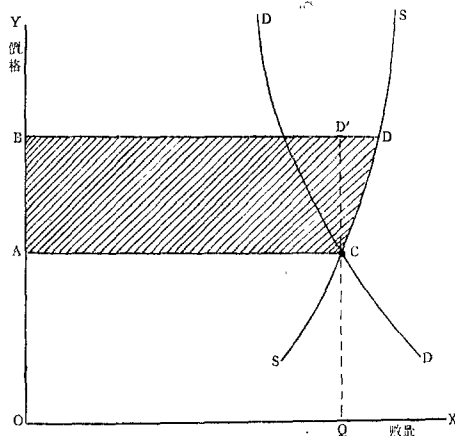
高農產物價格政策이 일반적으로 獨占企業의 反對와 都市消費者의 壓力으로 그 實現에 큰 障礙를 받으므로 그들의 利害에 妥協하면서 食糧自給化를 達成할 수 있는 價格政策이 이른바 農產物二重價格制度이다.

農產物二重價格制度는 하나 하나의 農產物에 대하여 市場價格과 政府支持價格의 두개의 價格을 設定하고 農民은 生産物을 市場價格으로 販賣하지만 市場價格이 政府支持價格보다 低水準일 경우에는 農民은 이 두 價格의 差額을 政府로부터 報償받으며, 한편 消費者는 政府支持價格과는 관계없이 그 보다 낮은 價格으로서의 市場價格에 의하여 農產物을 購買할 수 있도록 하는 價格政策이다.

이 二重價格制度는 農民에게는 위에서 논의한 高價格政策과 같은 水準의 政府支持價格을 받을 수 있게 하고, 獨占企業과 消費者에게는 그 보다 훨씬 낮은 從前의 市場價格으로서 農產物을 購入할 수 있게 하여 兩側의 利害 특히 獨占企業과 消費者의 反對가 고려되어 감안되므로 政治的 壓力의 對決은 發生하지 않으며 食糧自給化를 위해서도 매우 效率的인 價格政策이다. 이 二重價格政策에 있어서의 問題點은 政府가 農產物의 市場價格과 政府支持價格의 差額을 農民에게 報償할 수 있도록 多額의 財政資金을 매년 確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그림으로 說明하면 市場價格은 需要와 供給이 均衡되는 價格인 $OA=QC$ 水準에서 決定되고 政府支持價格은 그 보다 높은 $OB=D'Q$ 水準에서 決定되어 하나의 農產物에 대

<제 2 도> 二重價格의 決定



하여 二重價格이 形成된다. 이 때 政府는 政府支持價格과 市場價格의 差額인 □ABCD 만큼의 財政資金을 確保해야 하는 것이다.

이 二重價格政策은 一見하여 財政資金의 負擔때문에 實現하기 어려운 政策처럼 보일지 모르나 해마다 巨額의 外換을 食糧導入을 위하여 海外에 支出하여야하는 食糧不足國은 食糧導入資金을 二重價格制의 基金으로 活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려운 政策도 아니며 無理한 政策인 것도 아니다. 不足食糧을 導入하기 위하여 해마다 2億 5,000萬弗以上の 外換을 支拂하여야 하는 우리나라는 이 資金(外上도 포함되어 있지만)을 基金의 一部로 轉用할 수도 있다. 食糧導入을 위하여 支出되는 外換은 한번 海外에 支拂되면 永久이 回收되지 않고 惡循環이 되풀이되지만, 食糧自給化를 위한 二重價格制度의 基金은 國內에서 循環되는 것이므로 貨幣의 흐름을 農產物 二重價格制度라는 機構를 한번 通過하도록 세 通路를 만들어 주는데 不過하다. 이 새로운 貨幣의 흐름의 通路의 創出로 인하여 食糧이 自給化되어 해마다 2億 5,000萬弗以上の 外換이 節約되고 農業所得이 增大되어 農業開發과 同時에 製造業에 대한 有效需要가 增大되어 工業發展이 誘發되고 農業과 工業 사이에 良循環이 成立되어 國民經濟의 成長에 乘數效果가 나타난다면 農產物 二重價格制度는 매우 效率性이 높은 戰略的인 政策이 될 것이다.

農產物二重價格制度를 實現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논의하여야 할 큰 문제점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즉 첫째는, 政府支持價格水準의 決定問題이요, 둘째는 市場價格水準의 決定問題이요, 셋째는 二重價格基金을 위한 財政資金確保의 方法問題이다.

이 중에서 첫째의 政府支持價格決定의 문제는 앞서 高農產物價格政策에서 이미 解答을 얻은 것이다. 즉 限界地에 있어서의 平均生産價格에 政府가 期待하는 食糧生産의 目標增加率에 準하여 선택한 프리미엄을 加算한 價格이 우리가 주장하는 政府支持價格의 水準이다.

둘째의 市場價格水準의 결정은 理論的으로는 競爭下에서의 需要와 供給의 均衡價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政府의 政策價格이 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食糧不足狀態에서 食糧導入이 없을 경우의 農產物市場價格은 政府支持價格水準을 上廻할 것이요, 食糧導入이 있을 경우에는 市場價格은 政府가 策定하는 導入量에 左右될 것이기 때문이다. 政府가 市場價格水準의 上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價格이 家計費米價이다. 주의할 것이 이 家計費米價는 市場價格의 「上限」이지 下限이 아니라는 점이다. 二重價格制度下에서는 上限으로서의 家計費米價以內에서 政府가 어떠한 市場價格水準을 維持하여도 큰 문제가 없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政府의 財政負擔能力에 依存하는 문제이다. 家計費米價는 다음과

같이 算出한다.

$$P = \frac{R + K \cdot O}{Q}$$

P = 平均家計의 米穀石當價格

R = 平均家計의 米穀購入費

O = 米穀購入費以外的 平均費用

K = 副食費以外的 家計費中에서 米穀購入費로 補充하는 比率

Q = 米穀消費量

셋째의 財政資金確保의 方法은 현재의 與件 위에서 적어도 세가지 方法이 可能하다.

① 政府財政에 一括的으로 包括시키는 方法. 이것은 歲入에 있어서는 特定の 分類를 하지 않고 歲出에 있어서만 農產物二重價格特別會計를 設定하여 每年 自動的으로 基金이 計上되도록 하는 方法이다. 先進國의 二重價格制度는 모두 이 方法을 使用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財政資金源泉의 確保는 歲入增大源泉의 確保와 동일하다.

② 二重價格制基金確保를 위한 特種의 政府專賣事業의 新設. 이것은 현재의 煙草나 人蔘과 같이 새로운 政府專賣業種을 新設하여 그 專賣益金을 二重價格制度基金의 源泉의 하나로 確保하는 方法이다.

③ 農產物을 原料로 하는 製品에 대하여 二重價格制度를 위한 特定の 物品稅를 追加하는 方法. 이 方法은 消費抑制를 수반하므로 食糧過剩國의 二重價格制에서는 오히려 有害하고 食糧不足國의 二重價格制度에서만 自給化水準에 도달할 때까지 使用할 수 있는 方法이다.

이상의 세가지 方法을 여러가지 형태로 組合하여 使用할 수도 있다.

4. 高農產物價格政策과 二重價格制度의 綜合

하나 또는 몇개의 增收效果가 높고 동시에 代替可能性이 큰 戰略的 品目이 存在할 때에는 高農產物價格政策과 二重價格制度를 部分的으로 綜合하여 食糧自給化를 위한 價格政策으로 使用할 수 있다.

예컨대, 米穀에 대해서는 高米價政策을 實施하고 麥類에 대해서는 二重價格制度를 實施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價格政策은 우리 나라의 麥類와 같이 增產의 可能性이 크고 代替效果가 큰 品目이 있을 때 매우 效率性이 높은 政策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麥類의 土地生產性 提高의 可能性이 매우 크고 또한 外延的으로도 二毛作擴大를 통한 產出量增加의 可能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價格政策을 잘 活用하면 食糧自給化가 비교적 용이하게 達成될 수 있는 戰略的 政策이 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몇가지 假定을 하여 그 可能性의 일단을 보기로 한다. 主食糧을 米穀과 麥類로 構成되어 있다고 단순화하여 假定하고, 食糧自給率을 75%라고 假定하며 米穀은 國內生産에 의하여 2,900 萬石을 供給하고 外國으로부터 400 萬石을 導入한다고 假定하며, 麥類는 1,800 萬石을 國內生産에 의하여 供給하고 1,200 萬石을 外國에서 導入한다고 假定한다. 小額의 다른 品目は 기본적으로 自給化가 된다고 假定하여 잠간 이를 접어두기로 한다. 다른 條件은 變化하지 않고(政府의 強力한 生産技術과 金融上的의 支援은 없고) 단지 價格政策만을 수정하여 米穀價格을 平均物價上昇率보다 20% 引上 하었다고 假定하면 米穀의 生産彈性値는 「플러스」 0.29 이므로 다른 條件을 變化시키지 않아도 米穀生産은 168 萬石이 增加한다. 또한 全國의 米穀需要의 價格彈性値는 「마이너스」 0.8 이므로 528 萬石의 米穀의 需要減少가 나타나며 이 減少部分은 一部가 다른 代替 品目으로 代替된다. 예컨대 米穀의 麥類에 대한 價格의 交叉彈性値는 「플러스」 0.3 이므로 198 萬石의 麥類消費로의 代替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米穀의 導入量 400 萬石은 增産 168 萬石, 需要減少와 代替需要 528 萬石, 合計 696 萬石의 調整으로 自給化를 實現하고도 남는다. 만일 이러한 價格政策 위에 積極的인 新技術導入과 金融支援의 增産政策이 촉진되면 生産增加의 効果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한편 麥類는 戰略的으로 급격한 增産을 위하여 農家販賣價格은 政府支持價格으로 하여 종래보다 40% 引上하고 消費者購入價格은 종래와 같은 市場價格으로 하여 二重價格制度를 實施하였다고 假定한다. 麥類의 生産彈性値는 「플러스」 1.8 이므로 1,296 萬石의 生産增加가 예측되며, 이것은 導入量 1,200 萬石을 充足시키는 것이고 米穀으로부터의 代替需要를 加算하는 경우에도 거의 自給化水準에 接近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政策에 反應하여 종래 秋收期가 약 5日 늦어서 麥類二毛作을 施行하지 않고 있는 中部地方의 畚二毛作限界線이 早期早植栽培의 自發的 導入에 의하여 大幅 北方 및 高地帶로 移動하여 植付面積이 급격히 增加한다면 計測되지 않는 產出量의 急激한 增加를 期待할 수 있다.

高米價政策과 麥類二重價格制의 綜合은 代替需要와 麥類增産이라는 戰略的 項目을 活用하여 食糧自給化의 可能性을 保障하여 준다.

실제의 우리 나라의 外穀導入實績을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米穀은 1970 년에 375 萬 7,000 石(541 千%), 1971 년에 692 萬 8,000 石(1,004 千%)을 導入하였고, 麥類는 小麥(小麥粉包含)을 1970 년에 927 萬 9,000 石(1,254 千%), 1971 년에 1,211 萬 6,000 石(1,672 千%)을 導入하였다. 이 외의 品目は 비교적 小量이어서 옥수수를 1970 년에 210 萬 1,000 石(284 千%), 1971 년에 287 萬 4,000 石(388 千%)을 導入하였고, 大豆를 1970 년에

26萬 9,000石(36千%), 1971년에 49萬 7,000石(67千%)을 導入하였다.

만일 우리가 高米價政策과 麥類二重價格制度를 綜合한 價格政策을 채택하여 施行한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선 米穀, 大豆의 두 品目은 當장 導入을 中止하여도 無妨하다. 麥類와 옥수수는 生産增加에 比例하면서 數年以內에 역시 導入을 中止하여 食糧自給化를 完全히 實現할 수 있을 것이다.

高米價政策과 麥類二重價格制度의 綜合의 경우의 高米價水準의 決定問題는 앞서 검토한 高農產物價格政策의 價格決定의 原理를 適用하면 되고, 麥類二重價格制度에 있어서의 政府支持價格水準의 決定問題와 消費者購入市場價格水準의 決定問題는 앞서 검토한 農產物二重價格制의 原理의 경우와 同一하다. 또한 麥類二重價格制度의 基金確保問題의 解決方法은 역시 앞서 검토한 農產物二重價格制度基金의 경우와 같다.

IV. 結 語

지금까지 考察해온 바와 같이 일부의 論者들이 食糧自給化에 懷疑的 立場을 취하고 貨幣論的 比較生産費說에 立脚하여 國際市場價格이 低廉한 海外農產物導入을 主張하여 온 것은 근본적으로 短期的이며 靜態的인 見解이었다.

그것은 食糧의 國內生産價格이 ① 現在 短期的으로는 國際市場價格보다 高價일 수도 있으나, 食糧自給化를 위한 本格的 農業開發投資가 施行되어 農業生産性이 提高된 以後에는 國內生産價格이 보다 低廉하게 된다는 事實을 망각한 것이다. ② 그들은 經濟에 있어서의 國境을 망각하고 食糧購入이 國富의 純漏出이라는 事實을 輕視하여 國民經濟의 概念을 무산시킴으로써 國內農業을 機能的으로 外國工業에 聯關시키고 있을 뿐, 食糧生産과 國內의 他產業, 他部門과의 關聯과 循環을 전혀 動態的으로 把握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③ 그리하여 그들은 外穀導入에 의한 食糧供給이 國內農業과 工業의 不均等成長을 激化시키어 國民經濟의 二重構造를 深化시킨다는 事實을 看過하고 있다. ④ 國民經濟의 二重構造下에서 外穀導入에 의하여 食糧을 供給하는 것은 工業用農產物의 對外依存까지 隨伴하여, 國內工業을 國內農業이 아니라 外國農業과 聯關關係, 分業關係를 設定케 하여 工業發展의 聯關效果가 海外로 漏出되며 工業發展마저도 沮害하고 國民經濟構造를 脆弱하게 만드는 것이다. ⑤ 또한 外穀導入은 慢性的 外換不足狀態에 있는 開發途上國의 國民經濟로 하여금 貴重한 外換을 出血支出케 하고 外換事情과 國際收支를 壓迫하여 國民經濟의 發展을 沮害한다. ⑥ 또한 그것은 農業生産과 農業所得을 停滯케하고 製造工產品에 대한 農民의 實質購買力을 缺乏케 하여 工業發展을 制約함으로써 經濟發展을 沮害한다. ⑦ 不足食糧을 外

穀導入에 의하여 充當하는 것은 그것을 國內에서 增産・供給하는 것보다 社會的, 心理的 不安을 造成하기 쉽다. ⑧ 또한 그것은 國民經濟의 自立度를 低下시키고 自立經濟體制의 最下層基盤을 교란하여 國民經濟構造를 脆弱하게 만들고 外國에의 政治經濟的 從屬을 가져오기 쉽다.

그러므로 國民經濟의 長期的發展을 保障하고 急速한 工業化를 加速的으로 實現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에 따르는 食糧自給化體制를 確立할 것을 強力히 主張하는 바이다. 더구나 매년 2億 5000萬弗~3億弗의 外換을 食糧導入을 위하여 支出하여야 하는 韓國經濟의 경우에는 食糧自給化는 단순한 農業問題일 뿐 아니라 單一品目으로서는 가장 크고 時急한 輸入代替産業開發인 것이다. 만일 食糧自給化를 위한 대대적 農業投資가 이루어져서 食糧自給化가 達成되면 한편으로는 巨額의 外換을 節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國內實質購買力을 創出하여 經濟發展에 乘數的 效果를 가져올 것이다.

중래 食糧自給化가 논의되어 投資計劃이 수립되면서도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온 것이 食糧自給化를 實現시키기 위한 農產物價格政策의 制度化의 측면이었다.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는 農產物價格政策이 農業增産에 誘引이 되도록 長期的으로 制度化되지 아니하고서는 食糧自給化를 達成할 수 있는 급속한 食糧增産은 期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側面的 對策이 不充分하였던 것은 國民經濟의 立場에서가 아니라 獨占企業의 立場에서 農民의 合理的 經濟行爲와 經濟意識을 극히 低評價하고 無視하는 低農產物價格政策의 主張이 支配하여 왔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食糧自給化를 위한 價格政策을 制度化하기 위해서는 低農產物價格政策論에 대한 철저한 批判이 있어야 할 것이다.

現在의 주어진 條件下에서 選擇할 수 있는 食糧自給化를 위한 農產物價格政策으로서 여기서는 세가지 方案을 分析하고 檢討하였다. 그 첫째는 高農產物價格政策이고, 그 둘째는 二重價格制度이며, 그 셋째는 高農產物價格政策과 二重價格制度를 綜合하는 方法이었다. 이 세가지 方法은 本論에서 지적한 諸問題點을 解決하고 長期的으로 制度化하여 採用하면 어느 것이나 食糧自給化를 達成할 수 있는 合理的이고 効率的인 價格政策이 될 것이다.

筆者：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助教授
" 專任講師